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정책학석사학위논문

교육복지지출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 국·공립 초등학교의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

2015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신 가 영

교육복지지출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 국·공립 초등학교의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봉 환

이 논문을 정책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4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신 가 영

신가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6월

위 원 장 김 순 은 (인)

부 위 원 장 이 수 영 (인)

위 원 김 봉 환 (인)

국 문 초 록

최근 교육복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교육복지사업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사업의 확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의 잠식 및 교육재정 건전성의 문제 등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복지사업의 부족한 재원조달 및 교육재원의 효율적 배분 논의가 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교육복지에 대한 지출이 교육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단위학교의 교육복지지출과 교육성과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단위학의 보편적 교육복지 지출 및 선별적 교육복지 지출이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며 둘째는 '학교가 속한 지역에 따라 각 교육복지지출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한가?'이다. 이를 위해 에듀데이터에서 제공하는 학교 단위 교육통계, 정보공시, 학교 회계 예·결산자료를 결합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한 후 연구에 필요한 변수에 결측치가 없는 3939개 국·공립 초등학교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학교회계 예·결산 자료에 나타난 2011년 교육비 지출 내역 중 교육복지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을 보편 및 선별적 지출로 각각 구분한 후 2012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중 보통 이상 학생 비중 및 기초 미달 학생 비중과의 인과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보통 이상 비중으로 대표되는 일반적 학업성취도에 대해 보편적 복지지출은 국어 과목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수학 과목에 대해서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적 복지지출은 두 과목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편, 학업성취도평가의 기

초 미달 학생 비중으로 대표되는 취약계층의 학업성취도에 대해 보편적 교육복지지출은 국어 과목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학 과목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선별적 교육복지지출은 국어와 수학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추가적으로 분석한 학교 소재지에 따른 각 교육복지지출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기준 그룹인 특별·광역시 및 시 지역에 비해 읍, 면 및 특수지역의 경우 선별적 교육복지지출이 국어와 수학 두 과목 모두 보통 이상 학생 비중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별·광역시 및 시에 속하는 학교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지역에 속하는 학교들에서 선별적 교육복지지출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면 및 특수지역에 속한 학교들은 특별·광역시 및 시 지역에 비해 보편적 교육복지지출을 늘릴 때 국어 과목에 대한 기초 미달 학생 비중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보편 및 선별 교육지출 모두 대도시 소재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학교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실제 지출된 교육복지지출에 대한 성과를 검증함과 동시에 소재지 등 단위 학교의 특성에 따라 어떤 방식의 교육복지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지 살펴봄으로써, 제한된 교육재정 하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주요어 : 교육복지, 보편적 교육복지, 선별적 교육복지, 교육성과, 학업성취도

학 번 : 2013-23645

〈 목 차 〉

제1장 서 론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3

제1절 교육복지의 개념과 유형 ····· 3

1. 교육복지의 개념 ····· 3

2. 선별적 교육복지와 보편적 교육복지 ····· 7

제2절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실제 ····· 11

1. 교육복지정책의 전개 ····· 11

2. 교육복지사업의 분류 ····· 13

제3절 교육복지지출과 교육성과에 대한 기존 연구 ····· 17

1. 교육비 지출과 교육성과 ····· 17

2. 교육복지 지출과 교육성과 ····· 19

1) 선별적 교육복지와 교육성과간의 관계 ····· 19

2) 보편적 교육복지와 교육성과간의 관계 ····· 22

제3장 연구 설계 ····· 24

제1절 연구문제 및 개념적 준거틀 ····· 24

제2절 변수 설정 ····· 29

1. 종속변수 : 보통 및 기초미달 학생 비중 ····· 29

2.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 31

1) 독립변수 : 1인당 교육복지 지출 ····· 31

2) 통제 변수 : 학교 특성, 교수학습 여건, 학교 소재지 ····· 34

(1) 학교 특성 : 자체수입비율, 학교 규모 ····· 34

(2) 교수학습 여건 : 비정규직 교사비율, 교사 당 학생 수 ····· 37

(3) 지역 요인 : 학교 소재지 ····· 38

제4장 연구 방법 ····· 41
제1절 분석 자료 ····· 41
제2절 분석 대상과 범위 ····· 41
제3절 분석 모형 및 방법 ····· 42
제5장 분석 결과 ····· 45
제1절 기술통계 분석 ····· 45
1. 독립 변수 : 교육복지 지출 수준 ····· 45
2. 통제 변수 ····· 52
3. 종속 변수 : 학업성취도 수준 ····· 58
1) 보통 수준 이상 학생 비율로 대표되는 일반적 학업성취도 ····· 58
2) 기초 미달 학생 비율로 대표되는 취약계층의 학업성취도 ····· 60
제2절 상관분석 ····· 62
제3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 65
1.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 65
1) 교육복지지출이 일반적 학업성취 수준에 미치는 영향 ····· 65
2) 교육복지지출이 기초 미달 학업성취 수준에 미치는 영향 ····· 71
2. 상호작용항을 고려한 모형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 74
1) 지역에 따른 교육복지지출의 상대적 영향력 비교(보통이상) ····· 74
2) 지역에 따른 교육복지지출의 상대적 영향력 비교(기초미달) ····· 78
제6장 결 론 ····· 81
제1절 연구의 요약 ····· 81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83
제3절 연구의 한계 ····· 84
참고문헌 ····· 86
Abstract

〈 표 목차 〉

〈표 2-1〉 선행연구에 제시된 교육복지의 개념 ····· 6
〈표 2-2〉 교육복지의 유형과 세부사업 예 ····· 9
〈표 2-3〉 우리나라 교육복지 정책의 전개 ····· 12
〈표 2-4〉 사업구조에 따른 교육복지 프로그램 분류 ····· 14
〈표 2-5〉 보편 및 선별 교육복지 프로그램 예시 ····· 16
〈표 3-1〉 교육복지 정책성과지수로서의 성취도 ····· 31
〈표 3-2〉 본 연구의 교육복지 지출 구분 ····· 33
〈표 3-3〉 본 연구의 변수 정의 ····· 40
〈표 5-1〉 전국 국·공립 초등학교 1인당 교육복지 지출 수준 ····· 45
〈표 5-2〉 지역별 국·공립 초등학교 1인당 교육비 지출 수준 ····· 48
〈표 5-3〉 새로운 지역구분별 국·공립 초등학교 1인당 교육비 지출수준 49
〈표 5-4〉 지역구분별학교, 교수·학습특성 관련 기술통계량 ····· 57
〈표 5-5〉 2011년 및 2012년 보통 이상 학업성취도 학생 비율 ····· 59
〈표 5-6〉 2011년 및 2012년 기초 미달 학업성취도 학생 비율 ····· 60
〈표 5-7〉 본 연구의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간 상관계수 ····· 63
〈표 5-8〉 독립·통제변수간 다중공선성 진단(공차, VIF) ····· 64
〈표 5-9〉 보통이상의 국어 성취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66
〈표 5-10〉 보통이상의 수학 성취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68
〈표 5-11〉 기초미달수준의 국어 성취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71
〈표 5-12〉 기초미달수준의 수학 성취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72
〈표 5-13〉 지역에 따른 교육복지지출 영향력 차이(국어 보통이상) ··· 74
〈표 5-14〉 지역에 따른 교육복지지출 영향력 차이(수학 보통이상) ··· 76
〈표 5-15〉 지역에 따른 교육복지지출 영향력 차이(국어 기초미달) ··· 78
〈표 5-16〉 지역에 따른 교육복지지출 영향력 차이(수학 기초미달) ··· 79

〈 그림 목차 〉

〈그림 3-1〉 연구문제에 대한 개념적 준거틀 1 ····· 25
〈그림 3-2〉 조절효과를 추가한 개념적 준거틀 2 ····· 27
〈그림 4-1〉 단계적 회귀분석을 위한 다중회귀모형 ····· 43
〈그림 4-2〉 선행연구에 제시된 교육복지의 개념 ····· 44
〈그림 5-1〉 전국 국·공립 초등학교 1인당 교육복지 지출 수준 ····· 49
〈그림 5-2〉 새로운 지역구분별 1인당 보편적 교육복지 지출 ····· 50
〈그림 5-3〉 새로운 지역구분별 1인당 선별적 교육복지 지출 ····· 51
〈그림 5-4〉 지역유형에 따른 자체수입비율 분포 ····· 52
〈그림 5-5〉 지역유형에 따른 학교규모(총학생수) 분포 ····· 54
〈그림 5-6〉 지역유형에 따른 교사 당 학생 수 분포 ····· 55
〈그림 5-7〉 지역유형에 따른 비정규직 교사비율 분포 ····· 56
〈그림 5-8〉 지역에 따른 2012년 보통이상 학업성취도 학생비율 ····· 59
〈그림 5-9〉 지역에 따른 2012년 기초미달 학업성취도 학생비율 ····· 61

제1장 서 론 :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교육복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인한 교육복지 관련 예산의 지방이양 및 교육복지사업의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책임을 맡게 된 시·도교육청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연구원(2014)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2013년 기준)도입된 '무상급식' 및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과 교육을 통합한 '누리과정'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교육복지는 전체 교육복지사업 규모의 2/3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와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의 15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 등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교육복지 가운데서도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응하여 기존 예산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긴축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복지사업의 불가역성을 고려해 재정 부담능력을 벗어난 사업 확대로 향후 재정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명시(김혁연, 2014)하고 있으나 급격히 늘어나는 지방교육채 및 자금조달에 따른 이자비용의 문제 등은 교육재정 건전성 저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관련 정책을 둘러싼 쟁점[1)]이 제기될 때마다 보편 및 선별적 복지 여부에 대한 엇갈린 선호와 이에 따른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논의를 뒷받침할 교육 지출과 성과에 대

1) 임연기(2013)는 교육복지의 확대가 선거마다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는 것이 현실의 추세이며 정치권에서는 유권자를 의식하여 계속적으로 교육복지 의제를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육복지 확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보았다.

한 기존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혹여 다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국가 차원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규명하거나 광역 교육청 수준의 거시적 재정 현황에 대한 단순 기술에 그치는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 감이 있었다. 다행히도 최근 교육학자, 경제학자, 그리고 일부 행정학자들을 중심으로 교육복지의 외연적 개념을 정의하고(김민희, 2012; 김인희, 2006; 김정원, 2010; 노기호, 2012; 천세영 외, 2013) 정확한 교육복지 관련 재무 정보를 정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한된 교육재원을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려는 연구경향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최근 도입된 에듀파인 시스템에 따라 활용할 수 있게 된 에듀데이터의 학교 회계 예·결산자료를 통하여 교육복지지출과 교육성과 간 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학생들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성과가 나타나는 학교 단위의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지출된 교육복지지출에 대한 성과를 검증함과 동시에 학교의 특성에 따라 어떤 방식의 교육복지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통해 제한된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후 정책 마련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교육복지의 개념과 유형

1. 교육복지의 개념

교육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복지 관련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 및 확대되어 왔다(김혁연, 2014; 한유경,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라는 용어는 다소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교육복지라는 용어가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사용되고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을 정도의 개념 정립 및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다(노기호, 2008). 다만 교육복지는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교육소외 · 교육불평등 · 교육격차의 해소 등과 같은 유사한 용어에 포함되어서도 다루어져온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명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복지는 수혜 대상, 목표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먼저 교육복지의 목표를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교육복지를 교육의 정의로움을 구현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김경애 외, 2011; 이돈희, 1999; 한유경, 2013; 허병기, 1998). 김경애 외(2011)는 교육복지는 사회정의, 교육정의[2]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교육받는 일 자체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므로 교육복지로부터 배제되는 개인

2) 김경애 외(2011)는 교육의 정의로움을 구현하는 필요조건에 대해 교육적 자원 기회배분 방식의 교육적 목적에 대한 부합성, 최대한 공평한 출발선을 만드는 것, 결과의 평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나 집단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르면 교육복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며 그 자체로서 가치로운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돈희(1999)는 “교육에서의 정의란 교육제도가 창출하는 가치의 배분을 위한 규칙과 그것을 준수하는 사회적 행위가 정의로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복지를 통해 이러한 교육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함승환 외(2014)는 이러한 연구들이 “학습자가 지니는 기본적 권리로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인희(2012)는 교육복지란 교육정의실현을 위한 한 부분이며 이는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학습경험과 교육기회가 평등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교육복지가 그 자체의 실현을 넘어 다른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 수단적 성격을 지님을 강조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이는 교육복지를 통한 투자가 양질의 인적 자원을 육성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에 주로 기초하고 있다. 교육투자가 적정하고 효율적이며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개인의 소득 증대와 함께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안정 및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경제학의 대표적 학자인 슐츠(shultz)의 인간자본론(human capital theory)에 근거한 것으로 궁극적인 교육의 효과를 교육기관 밖의 노동시장에서 찾는 시각이다(곽영우, 2003). 한편 경제적 관점 이외에도 노기호(2008)는 교육복지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위화감 등을 완화시키고 고질적인 교육문제로 지적되는 사교육비 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시각은 교육복지의 수단적 가치를 강조하되 교육 내의 문제에 대한 해결에 주목함으로써 교육의 직접적 대상인 학생 자체의 성장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교육 환경에

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의 교육복지의 중요성을 환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복지의 대상에 따라서도 개념이 사뭇 다르게 정의된다. 김인희·이혜영(2011)은 교육복지란 교육취약집단에 대한 지원을 통한 기본적 교육기회의 보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교육복지의 대상은 교육취약집단이다. 김정숙·성열관(2015)에 따르면 교육복지 관련 실무자들은 교육복지를 "취약 학생들에 대한 기회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 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한편, 보다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교육복지를 "좋은 상태의 유지를 위한 교육 정책적, 제도적 개입"이라고 정의하거나(정근식·주윤정, 2013)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교육에서의 최소 기준에 도달할 수 있고 각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교육복지라고 본다(김정원, 2008). 이봉주·우명숙(2014) 역시 교육복지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있다고 보아 교육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들에게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되는 제반 활동들을 교육복지라고 정의하여 교육복지의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넓게 보아 교육복지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교육복지의 개념을 협의 및 광의로 구분하는 시각은 수혜 대상을 기준으로 보는 입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데 협의는 '교육취약·소외집단' 등을 위한 지원활동으로, 광의는 '모든 이들의 질 높은 삶을 위한' 지원활동으로 보아 협의의 개념은 '선별적 교육복지'와 광의의 개념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개념과 맥락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정숙·성열관, 2015).

다양한 정의 중 본 연구에서는 교육복지를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준에 도달하고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교육취약집단을 대상으로 교육적 격차를 해소하고 진정한 의미

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본 한국교육개발원(2014)의 정의를 채택하여 교육복지를 광의적 개념으로 보되 그 성격을 보편 및 선별로 나누어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표 2-1] 선행연구에 제시된 교육복지의 개념

선행연구	대상	교육복지의 정의	목적
이돈희 (1999)	모든교육대상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복지적 동기에 의한 교육기회 제공, 교육정의의 실현	개인 성장욕구의 실현
윤철수 (2005)	교육취약집단 및 모든 집단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교육소외 및 교육불평등 현상들을 해소하고 전 국민이 높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누리도록 하는 노력들의 총체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기함은 물론 나아가 국가의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것
이혜영 외(2005)	교육취약집단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소외·부적응·불평등 현상을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는 것	모든 국민이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게 하는 것
김인희 (2006)	교육취약집단	교육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의도된 노력의 총체를 의미	교육소외를 극복하여 정상적인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
김정원 (2008)	교육취약집단	교육취약집단에게 필요로 하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공적지원을 하는 것	교육취약집단의 성장
류방란 (2010)	교육취약집단 및 모든 대상	교육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공공의 실천적 행위	모든 국민이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함
정근식·주윤정 (2013)	모든교육대상	좋은 상태의 유지를 위한 교육 정책적, 제도적 개입	교육대상에게 좋은 상태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봉주·우명숙 (2014)	교육취약계층을 포함하는 모든 대상	교육취약계층(아동)의 건강한 발달(인지적 발달 포함)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발달을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되는 활동	모든 국민이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게 하는 것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4)의 표(p.14)를 인용 및 재정리

2. 선별적 교육복지와 보편적 교육복지

교육복지는 교육영역에 대한 복지인만큼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3]를 둘러싼 사회복지 영역의 논쟁이 그대로 투영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론적 쟁점으로서의 보편주의(universalism)란 사회적 권리로서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지급여 자격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선별주의(selectivism)는 복지대상자를 결정할 때 특정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만을 선별적으로 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인희(2012)는 우리나라의 교육복지는 교육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선별적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와 교육 그 자체가 복지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는 적극적 관점에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보편적 교육복지는 특정한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협의의 교육복지는 교육소

3) 천세영 외(2013) 및 김혁연(2014)은 사회적 취약집단이나 교육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교육복지를 잔여적 교육복지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의의 교육복지를 제도적 교육복지로 보면서 잔여적 교육복지를 사회적 취약집단과 교육적 취약집단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외계층 또는 교육취약집단 등 특정 대상에 대해 교육기회를 확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4]. 따라서 교육복지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대상을 특정하는 논의는 선별 및 보편적 교육복지의 논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안병영·김인희(2009)는 "교육복지는 학습자에게 공평한 교육기회와 양질의 교육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교육적 정의의 구현에 기여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때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복지 사업이 교육취약집단에 한정되느냐 교육 제도 내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교육복지사업의 성격이 선별적 혹은 보편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선별주의 또는 잔여주의 자체를 더 세분화하여 논의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특정 조건을 충족한 개인 모두를 수혜 대상으로 하는지, 혹은 어느 집단 안에서도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긍정적 선별주의 및 부정적 선별주의로 구분하는 방식, 선별적 교육복지의 대상이 선천적으로 교육취약계층에 속하게 된 경우와 후천적 요인에 의하여 속하게 된 경우를 나누어 보는 방식이 이에 속한다.

4) 천세영 외(2013)는 선별주의의 개념의 모호성을 이유로 잔여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서 "잔여주의 복지란 보편주의와 달리 구매력의 차이로 시장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라고 하였다. 또한 김혁연(2014)은 "잔여적 교육복지는 교육복지정책의 주요 초점 대상을 사회적 취약집단이나 교육취약집단으로 한정한다"고 주장하여 잔여적 교육복지의 대상이 선별적 교육복지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표 2-2] 교육복지의 유형과 세부사업 예

교육복지의 유형		세부사업(예시)
보편적(제도적) 교육복지		친환경 무상급식 초·중등 무상교육 지원
선별적 교육복지	선천적 교육복지	저소득 학생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특수아동 지원
	후천적 교육복지	학교 부적응 아동 지원 기초학력미달학생 지원

자료 : 김혁연(2014)을 변형·정리하였음

한편, 보편과 선별을 단순히 지급 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위 기준에 대한 비판 역시 존재하는데, 이봉주·우명숙(2014)은 위 기준에 따르면 복지 혜택이 어떠한 조건 없이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극히 예외적 사례 외의 모든 복지는 모두 선별적 복지가 되어버린다고 비판하였으며, 구인회 외(2010)는 대부분의 복지는 보편과 선별의 연속선상 위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연속적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방과 후학교의 경우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으며 원하는 학생들 모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방과 후 학교 참가비용을 자부담할 수 없는 학생들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선별적 교육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동욱 외(2011) 역시 이런 점에서 교육복지를 선별과 보편으로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실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교육복지 정책들은 보편과 선별의 스펙트럼의 연속선상에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보편과 선별 개념을 상대적으로 볼 경우에 교육복지 지출을 구분할 수가 없다.

한국교육개발원(2014)의 보고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교육복지투자가 보편적 복지에 집중되어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이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보편과 선별에 대한 논란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보편적 교육복지와 선별적 교육복지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교육복지 제도를 구상하는 것이 필요한 현재, 타당한 기준을 의도적으로라도 설정하여 보편과 선별을 나누어 지출 방식의 효율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

제2절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실제

1. 교육복지정책의 전개

교육복지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법 앞의 평등’, ‘교육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 노력의무’ 조항 등에 기초하여 정책으로 구현된다. 류방란(2010)은 이와 같이 교육복지가 교육소외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의 해결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실천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나아가 교육복지정책으로 구현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있어 교육복지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작된 1980년대 중·후반이며, 교육복지를 보다 적극적인 공공의제로 채택하고 재원을 투입하는 종합적인 정책으로 실현시킨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김민희, 2012; 김혁연, 2014). 특히 기존의 교육복지는 주로 교육취약·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 부적응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의 형태를 띤 선별적 교육복지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국민기초교육수준의 보장 측면을 강조해왔다(김정숙·성열관, 2015; 이봉주·우명숙, 2014; 함승환 외, 2014). 이 후 점차적으로 교육복지 관련 사업들이 확대되고 무상급식,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 보편적 교육복지 의제가 교육정책에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른 교육복지 재정수요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김혁연, 2014). 다음 [표 2-2]은 기존 연구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나라 교육복지 정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재정리한 것이다.

[표 2-3] 우리나라 교육복지 정책의 전개

시기	핵심 내용	정책 과제 및 사업 예시
1990년대 (문민정부)	교육기회의 공정 배분과 보상에 대한 관심	장애자 특수교육 기관 설치 산업체 부설 학교 및 학급 지원 강화 저소득층 학비 지원 확대 교육결손집단에 대한 교육적 관심 제고 비진학자를 위한 진로교육 강화 학습부진아에 대한 보충지도 실시 등
	개인의 자율과 선택을 통한 교육복지국가 건설	자율과 책무의 강조 소비자의 선택·경쟁 (현재의 학교자율화, 고교 다양화, 정보공시제, 학업성취 공개, 교원 평가로 이어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정부·참여정부)	불리한 집단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서의 교육복지 정책 (국민기초 교육수준 보장, 교육부적응 해소,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복지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특수교육 발전방안 유아교육 기회 확대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저학력 성인 교육기회 확충 장애인·저소득층 고등교육 기회 확대 외국인근로자 자녀 교육지원 기초학력 보장 학업 중도탈락자 예방 및 대책 귀국학생 교육 지원 북한 이탈 청소년 대책 도시저소득지역 학생을 위한 지원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보화격차 해소 방과 후 교육활동 밝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학생 건강 증진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등

2008년 이후 (이명박정부 ·현 정부)	모든 국민이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함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실시 고교무상교육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누리과정, 유치원 돌봄기능 강화 유아교육비 부담경감

자료 : 류방란(2010) 보강하여 재정리

2. 교육복지사업의 분류

최근 정부 및 학자들에 의해 우리나라 교육복지사업의 성질별 분류가 시도되고 있다. 먼저 2010년도부터 발간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분석보고서에서는 각 시·도별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출되는 교육복지투자 영역을 학비지원, 방과후교육 지원, 급식비지원, 정보화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지원, 교육복지우선 지원, 누리과정, 교과서 지원, 학력격차해소로 각각 구분하여 이에 투자된 지출액을 분석 및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교육개발원(2014)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분석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복지항목의 투자규모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과소 추정될 수 있는바, 첫째는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구조에서 '교육복지지원'이라는 정책사업의 예산과목이 실제 교육복지적 성격을 가진 모든 투자들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며, 둘째는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 예산과목이 아닌 다른 정책사업 예산과목에 교육복지투자의 예산이 편성된 경우(예, 2011~2012년의 교과서 무상지원) 실질적으로는 광의의 교육복지 성격을 가진 여러 지출들이 교육복지투자규모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2014)의 연구는 대상의 포괄성(선별/보편)과 교육과의 관련성(기본/부가)에 따라 교육복지사업을 나누어 교육복지사업의 세세부사업 수준에까

지 내용 분석을 통해 교육복지성격의 사업을 도출하고 해당 사업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그 규모와 비중의 추이를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2011, 2012, 2013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결산서에 나타난 세세부사업의 내용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재정전문가 및 교육부, 시도교육청 예산담당자, 사회복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교육복지사업의 성격을 추출하였다.

[표 2-4] 사업구조에 따른 교육복지 프로그램 분류

사업구조	설명
정책사업	- 단위학교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상위 사업 분류로 단위사업의 묶음 - 교육부 선정 - 예시 : 인적자원운용,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기본적 교과활동 등
단위사업	- 정책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사업 성격별로 통합·단순화한 사업 분류로 세부사업의 묶음 - 교육부 선정 - 예시 : 교직원 보수, 교과활동, 특별활동 등
세부사업	-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세부내역으로서 각 사업담당자가 실제 운용하는 최소단위의 사업 - 단위학교별 자율 설정 - 예시 :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학교급식 운영 등

자료 : 김용남 외(2012)

다만, 교육복지지출을 구분하고 있는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교육청 수준에 대한 분석으로서 단위학교의 사업에 대한 예·결산 세출분류와는 완벽히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학교 단위의 교육복지지출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출을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선

행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의적 판단을 지양하면서도 타당성 있는 분류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선행연구 중 단위학교 수준의 세출항목과 가장 유사한 기준을 제시한 연구들을 참고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복지사업의 세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이봉주·우명숙(2014)의 학교회계 세출구조 및 교육복지 프로그램 분류기준 중 교육부에 의하여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단위사업[5]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참고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교육복지의 재정규모는 교육복지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우선적으로 설정한 후 파악할 수 있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예산현황을 분석해온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들은 먼저 교육복지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유형을 구분하여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복지 프로그램 지출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분류과정에서의 자의성과 임의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전문가협의회를 거쳐 교육복지 기준과 분류기준을 선정한 후 예산의 분류체계에 따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사업항목1-사업항목2-사업항목3수준까지 예산사업을 자세히 살펴서 코딩하는 방식을 취하는 한편 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항목의 성격에 따라 교육복지의 유형을 달리 분류함으로써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성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기타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기존 연구[6]에서 보편적 교육복지 및 선별적 교육복지 등 교육복지유형을 분류하여 그 예시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선별적

5) 사업구조 중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은 교육부가 선정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세부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성격은 명확하지만 단위학교별로 세부사업명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학교 간 비교가 어려울 수 있다.

6) 류방란(2010)은 지역간 교육격차 정책사업의 예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농산어촌 1군 1우수교, 평생학습도시 조성확대, 대학생 멘토링 지원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사업으로 저소득층 학비 및 급식지원, 자녀 정보화 지원, 방과후학교 등을 꼽았다.

교육복지, 기타 교육비 지출 등으로 구분하였다.

[표 2-5] 보편 및 선별 교육복지 프로그램 예시

보편 및 선별 여부		프로그램 예시
보편		각종 캠프 및 체험활동 건강체력증진사업 인성진로교육지원 학교급식관련사업 학습준비물지원 환경위생관리 등
선별	발달상 욕구	기초학력보장관련 프로그램 다문화교육관련 사업 돌봄교실 지원 특수교육 및 탈북학생 지원 등
	저소득	방과후학교 관련 프로그램 저소득층 인터넷, 컴퓨터, 학비 지원 등

자료 : 이봉주·우명숙(2014) p.83 〈표2〉에서 발췌

제3절 교육복지지출과 교육성과에 대한 기존 연구

1. 교육비 지출과 교육성과

교육비 지출로 인해 기대되는 교육성과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가정 중 하나는 학교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의 수준이 학업성취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전영한·금현섭(2011) 역시 조직이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할수록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공공조직, 민간조직을 막론하고 조직이론에서 널리 알려진 기본적 원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에 대한 재정적 투입은 여러 경로를 통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교육재정과 교육성과간의 관계를 비용-효과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임천순 외(2011)는 이와 같이 교육비 지출과 교육성과 간 관계를 다룬 학교 효과 연구가 크게 두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그 첫째는 Coleman 보고서[7]의 결과에 기반하여 주로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변인과 교육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흐름이고, 둘째는 경제학을 기반으로 하여 투입-산출의 모형 및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주로 재정과 관련된 제반변수를 투입으로 규정짓고 산출인 교육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흐름이다.

먼저 해외 기존연구를 보면 Hanushek(1986)의 교육생산함수에 대한 메타분석 이후 지속적인 재검토 및 비판이 이루어졌으나 학생 1인당 교육비와 교육성과, 특히 학업성취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김지하, 2014).

---

7) 학생 일인당 교육비, 학교시설, 도서관 장서 수 등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과 관계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로서 학교변인과 교육성과의 관계를 부정한 대표적 교육보고서이다.

다만 최근까지도 신뢰성 있는 단위학교 및 지역교육청의 회계 예·결산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고, 단위 교육기관의 교육성과를 측정하는 기준 자체를 설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매년 교육에 투입되는 많은 재원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정동욱 외, 2011). 또한 기존 선행연구[8] 다수가 국가 또는 지역 교육청 수준의 교육비 지출 분석에 치중되어 있거나(OECD, 2014; 천세영 외, 2013) 단순히 전체 교육 사업에 쓰인 금액 또는 학교의 전체 예산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만을 독립변수로 취하고 있는 등(이현숙 외, 2011)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실질적인 교육투자의 결과에 대한 효과성을 제대로 측정해내는데 어느 정도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공개된 학교알리미 회계 자료 및 2010년 이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다양한 연구 가능성이 높아지고 학교재정과 교육성과 간의 정교한 분석이 가능해지는 등 새로운 기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정동욱 외(2011) 및 김지하(2014)의 연구를 주목해볼만한데, 정동욱 외(2011)는 단위 학교별로 공개된 학교회계 결산자료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 1인당 교육비 당 학업성취도를 살펴봄으로써 교육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이 때 서울시 11개 지역교육청에 속해있는 총 543개 학교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무료급식지원학생비율, 특수학생비율, 학교 내 총학생수 등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한편, 김지하(2014)는 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회계 세입·세출 구조 유형과 학업성취도간 관계에 대한 최근 실증 연구는 학교회계 세입구

8) 우명숙(2010)은 학생 1인당 교수학습활동비가 중학생의 국어 및 영어 학습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현숙 외(2011)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체 예산 대비 교수학습비 지출 비중이 학습 태도 및 학업성취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임천순 외(2011)의 연구에서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의 교육재정과 학교 특성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를 학교기본운영비 집중형(1유형), 목적사업비 집중형(2유형), 학부모부담경비 집중형(3유형)으로 구분하고, 세출구조를 교수학습활동 집중형(1유형), 교육복지 집중형(2유형), 경상비 집중형(3유형), 시설비 집중형(4유형)으로 각각 나누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단순한 1인당 교육비 지출이 아닌 학교 수준에서의 세부 교육비 지출과 학업성취도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회계구조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제한된 교육재원의 활용에 있어 특히 최근에 문제되는 보편 및 선별적 복지 사업 중 어떤 방식의 교육복지투자가 교육성과를 달성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한 교육비가 투입된 이후 학업성취도라는 교육성과로 나타나기까지의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점 역시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투입된 교육복지지출을 보편과 선별로 각각 구분하되 시차를 고려하여 교육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교육복지 지출과 교육성과

1) 선별적 교육복지와 교육성과간의 관계

교육의 과정 및 결과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시정하고 취약집단에게 교육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은 주로 선별적 교육복지를 통해 교육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관점에 입각한 것이다. ‘선택하지 않은’ 사회적 격차로 발생하는 교육의 불평등을 정의롭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허병기, 1998). 또한 Rawls의 보상원리가 등장하면서 교육 평등이 단지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선천적 불평등을 사회가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과정 및

결과의 평등으로 그 의미가 점차 확대되어 오면서 선별적 교육복지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교육복지의 개념와 목적을 정의하는데 있어 전통적 입장으로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육복지 관련 실무자들은 교육복지를 협의의 의미, 즉 선별적 교육복지로 받아들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다고 한다(김정숙·성열관, 2015). 이와 같이 선별적 교육복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교육복지의 개념이 보편적 복지로 확대될 경우 교육취약집단의 발굴이 어려워진다[9]는 측면에서 선별적 복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선별적 교육복지의 제공은 다음과 같이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측면의 교육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공교육이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교육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은 불리한 아동기를 겪게 되며 이로 인해 낮은 학업성취도를 경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직업과 고용불안정을 겪게 되어 빈곤이 세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통해 취약학생들이 성장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정적 경험에 따른 심리적 위축, 영양·보건 문제, 학습 부진 문제 등을 해결함으로써 교육 기회를 형평성을 제고하고 교육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가장 대표적인 선별적 교육복지 정책의 예로 다문화, 탈북자 가족, 저소득 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학교 등 사업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방과후학교의 경우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유수강권을 지급하여 2012년 기준 연간 48만원 내외 학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공급받고 이에 대해 추후로 비용을 지급하는 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실시된다. 또한 다문화 탈북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특별학급 신설, 탈북학생 전

9) 천세영 외(2013)는 이와 같이 약자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복지서비스가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지위를 상실해가는 현상을 잔여주의의 역설이라고 주장하였다.

담 코디네이터 배치, 특수학급과 학교뿐만 아니라 특수교사의 정원을 증원하여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여건을 대폭 향상시키고자 하며(한국교육개발원 2014), 저소득층의 일반학생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무상지원 인터넷 이용요금 지원 등의 정보격차 해소사업을 실시한다(정동욱 외, 2011). 즉 선별적 교육복지 정책은 단순히 공적부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취약계층의 역량 자체를 높이는데 초점을 둔 정책이다(김경애 외, 2011).

실제로 선별적 교육복지사업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학생의 학교적응 및 정서발달 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존재한다. 김희화(2010)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적응력과 학업유능감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자아효능감 및 학교생활만족도 등 정의적 측면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자신감 고취로 이어져 실제 학업성취도와 같은 인지적 측면 향상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선별적 교육복지정책에 대해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인효과와 선별 자체의 실패가능성으로 인해 기대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비판 역시 존재하는만큼 선별적 교육복지지출이 학업성취도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양 측면에 대해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김경애 외, 2011; 신중섭, 2010).

2) 보편적 교육복지와 교육성과와의 관계

보편적 교육복지를 강조하는 입장은 선별적 복지가 강조될 경우 대다수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고려하기보다 교육취약집단에 대한 시혜적 측면에 교육복지의 개념이 한정되는 것을 우려하여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욱 효과적이라는 관점에 입각해있다. 이와 같은 견지에 따르면 교육정책들은 특정 대상 집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학생)들이 권리로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교육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선별적 교육복지와 달리 보편적 교육복지의 경우 정책대상의 특성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이므로, 선·후천적 특성으로 인하여 불리한 교육기회에 놓여있는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성과를 높이는 방식의 선별적 복지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인과적 경로가 불분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신중섭(2010)은 저소득층에 대한 선택적 무료급식 지원은 아동들에게 낙인효과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으며 OECD(2007)에 따르면 학업 조기에 성적위주의 선별이 뚜렷해질 경우 학생들의 동기 및 자아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교육실패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별행위와 학생들의 동기, 자아효능감(self-efficacy) 등 정서적 요인사이에 부(-)의 관계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류방란(2010)은 교육소외 집단을 대상화하는 것은 낙인감을 주지만, 교육의 장에서 공정성을 경험하는 것은 비단 교육소외집단 뿐만 아니라 학습 공동체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Becker & Luthar(2010)의 연구는 학생의 학교에 대한 애착(school attachment)과 같

은 정서적 요인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였는데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행은 선별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소위 '낙인효과'를 제거하고, 조기 선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저하를 막아주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편적 교육복지에 따른 학생의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학업 동기 향상이 정의적, 인지적 교육성과 향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선별적 교육복지지출과 보편적 교육복지지출 모두 어느 정도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어떤 방식의 지출이 더욱 효과적인지 학교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의 의문은 기존 연구를 분석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제3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문제 및 개념적 준거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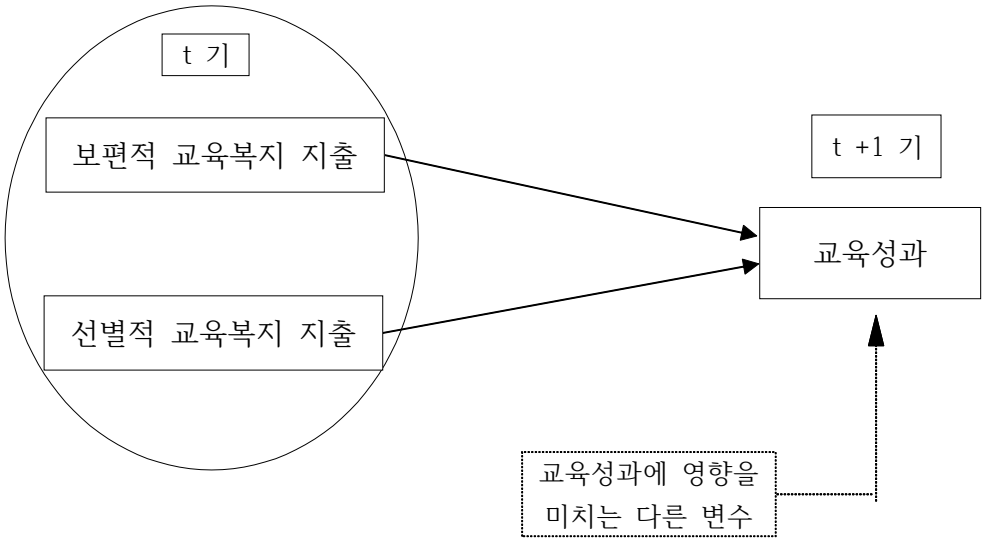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이루어져온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비 지출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검증을 바탕으로 하되 특히 교육비 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교육복지지출이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칠까?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자원의 지출수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자원의 활용방식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전영한·금현섭, 2011)을 고려하여 전체 교육복지지출을 보편적 복지지출과 선별적 복지지출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하였다. 단, 분석대상을 국·공립 초등학교로 한정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 및 개념적 준거틀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국공립초등학교 교육복지지출이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 보편적 복지지출이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 선별적 복지지출이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나아가 교육에 투입하는 지출과 교육성과 사이의 시차(time-lag)를 고려함과 동시에 두 변수간의 역인과(reverse causality)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t기에 해당하는 2011년의 교육복지지출과 t+1기에 해당하는 2012년의 교육성과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 3-1] 연구문제에 대한 개념적 준거틀 1



[그림 3-1]에 제시하였듯 각 교육복지지출과 교육성과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 때 독립변수인 교육복지지출과 종속변수인 교육성과 사이에 제3변수의 영향을 배제하고 진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념적 준거틀에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로 나타나있으며 변수설정 중 통제 변수의 설명 부분에서 '학교 특성', '교수·학습 특성', 지역 특성'으로 나누어 자세히 후술하고자 한다.

한편 Palardy(2008)는 학교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공립 고등학교를 세 개의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학교 투입(school input)요인과 학교 실행(school practice)요인의 효과가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사회·경제적배경이 낮은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학교 요인이 더욱 중요한 영향[10]을 미치는 것을 밝혀 내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교육복지지출이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Socio-economic Status: SES)에 따라 교육성과에 상이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와 같은 문제는 학교를 분석단위로 하는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만약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구성된 각 학교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평균적으로 유사하다면, 이를 통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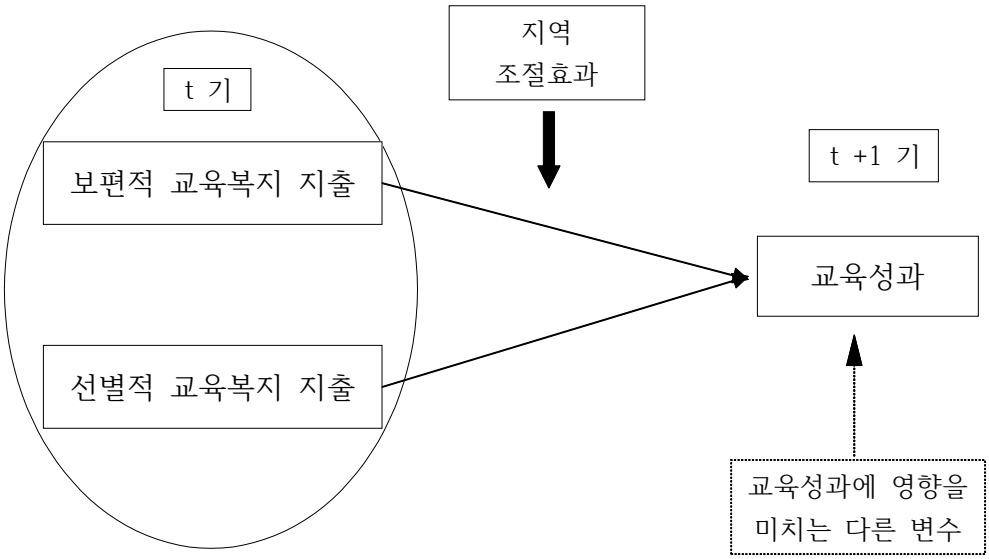
그러나 경험적으로 학교들은 평균적으로 학교가 속한 지역이나 학교의 유형 등에 따라 상이한 구성요소를 갖게 된다. 즉 학교의 사회·경제적지위가 평균적으로도 동질적이지 않을 수 있기에 이를 통제변수[11]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학교의 소재지에 따른 교육성과 차이를 분석한 기존 연구가 존재하는데, 우명숙(2010)은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보다 대도시 및 광역시 지역의 학생 성적이 낮다고 하였으며 김양분 (2011)은 중소도시가 읍면지역보다 언어 영역에서의 점수가 높고, 읍면지역의 학교에 비하여 광역시와 중소도시 소재 학교 학생들의 수리 점수가 높다고 하였다. 성적으로 대표되는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장성민 외(2010)는 중소도시의 경우 농어촌보다 학생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송경오(2011)는 대도시 소재 중학생들의 행복지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학교의 소재지에 따른 사회·경제적 차이가 교육성과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10) 학교 요인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학교에서 34% 설명력을 나타낸 반면, 중간인 학교와 높은 학교에서는 각각 8%, 11%의 설명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1) 정동욱 외(2011)는 분석대상인 서울시 초등학교가 속한 11개 지역 교육청을 더미변수로 고려, 김지하(2014)는 에듀데이터에서 분류해놓은 지역(특별·광역시, 시, 읍, 면, 특수지역)더미를 통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는 함의만 제공할 뿐 지역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여전히 교육에 대한 투자가 교육성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 나아가 학교 간 차이가 전제되어 있을 때 이러한 차이가 교육 지출이 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를 조절(moderate)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역 변수를 조절(moderating)요인으로 고려한 것이 [그림 3-2]의 개념적 준거틀이다.

[그림 3-2] 조절효과를 추가한 개념적 준거틀 2



두 개념적 준거틀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설 1] 보편적 교육복지지출은 학생들의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선별적 교육복지지출은 학생들의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학교가 속한 지역에 따라 각 교육복지지출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것이다.

제2절 변수 설정

1. 종속변수 : 보통 및 기초미달 학생 비중

먼저 교육성과라는 개념을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변수를 조작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교육성과로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학업 적응력, 학교교육 만족도 등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의 성과지표가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2). 이 중 교육복지와 관련한 교육성과 지수를 제시한 김정덕 외(2014)의 연구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균형 발전 지수를 연구한 류방란 외(2007)의 연구를 보완하여 교육 성과로서 적응도, 만족도, 성취도 관련 교육복지 정책성과지수를 제시하였다.

[표 3-1] 교육복지 정책성과지수로서의 성취도

영역		지표
산출	성취도	기초학력 획득수준 :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외부 수상, 내부 수상, 수료증, 취득 비율
		교육복지프로그램 계획의 목표 달성 여부(년간)
		전문 상담 참여 학생 수
		졸업률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률
		자아 존중감, 학습흥미 또는 학습 효능감

자료 : 김정덕 외(2014)

남수경·김태영(2013)에 따르면 학교 교육성과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성과

는 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말하며, 이에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학교의 특성을 찾고자 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우명숙, 2010; 김지하·우명숙, 2011; 이현숙 외, 2011; 임천순 외, 2011). 김지하(2014) 역시 교육성과로 가장 널리 객관적으로 활용되는 자료로 학업성취도를 꼽았다. 이와 같이 학업성취도는 교육성과를 살펴보는 다양한 지표 중 하나에 해당하지만 그 객관적 신뢰성과 명확성으로 인해 연구에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OECD의 국가 간 교육성과 비교의 근거로 활용되는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표의 우수성을 감안하여 종속변수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을 통해 동일 시점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한다. 따라서 측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검사요인 및 오염요인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는 학생들에게는 우수학력(교수학습내용 80%이상 성취), 보통학력(80%미만~50%이상), 기초학력(50%미만~20%이상), 기초학력미달(20%미만)의 4등급으로 통지되지만 에듀데이터에서는 보통학력(50%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의 3등급으로만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다(김지하, 2014). 본 연구에서는 과목 중 국어·수학과목의 보통학력이상 학생비율과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을 사용한 김지하(2014)의 연구와 동일한 종속변수를 사용하겠다. 국어 및 수학은 OECD에서 국가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할 때 사용되는 과목[12]에 해당하며, 영어 등 다른 과목에 비하여 사교육의 영향이 비교적 적게 미치는 과목이라는 선행연구[13]에 근거하여 채택한 것이다. 보통학력이상과 기초학력미달사이의 기초학력 범주를 고

12) 다만, OECD에서는 교육성과 평가를 위해 모국어에 대한 문해율을 측정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측정하는 국어영역과 어느 정도 상이할 수 있다.

려하지 않음으로써 의도적으로 학업성취도의 변화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범주만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1) 독립변수 : 1인당 교육복지 지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교육복지 세출을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에듀데이터에서 제공하는 학교회계자료 중 예산결산자료는 교육복지를 비롯한 학교사업을 정책, 단위,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의 내용을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14)의 교육복지사업의 분류 및 김혁연(2014)의 교육재정분류, 이봉주·우명숙(2014) 등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단위사업에 해당하는 지출을 각각 보편적, 선별적 지출로 나눈 후[14] 이를 학교의 총학생수로 나눈 1인당 보편적 교육복지 지출 및 1인당 선별적 교육복지 지출이 본 연구의 독립변수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에듀데이터에서 제공한 예·결산 자료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의 각 계정을 교육복지지출 및 기타 지출로 구분한 후, 보다 세부적으로 교육복지지출을 보편 및 선별로 구분하였다. 먼저 교육복지지출은 학습활동 및 학습에 관련된 복리향상을 위해 학생들에게 직접 투입되는 지출로 한정하였다. 교육복지 외 지출에는 인적자원운용, 교육활동지원, 학교일반운영, 학교시설확충, 학교재무활동 정책사업이 해당되는데, 이 중 간접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 학교 일반 운영 및 시설확충 지출은 광의의 교육복지 지출에 포함시킬 수도 있기

14) 제2장의 [표 2-5] 참조

때문에 연구의 분석 시 함께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광의의 교육복지 관점에서는 학습자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학교 조직 내부의 여러 활동들을 모두 교육복지로 간주하는바, 분석에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광의의 교육복지 지출에 포함되는 지출들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타 인적자원운용[15] 및 학교재무활동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5) 인적자원운용비의 경우 대부분이 인건비로 교사 및 교직원 급여에 충당되는 금액인데, 교사의 급여가 중요한 교육투입 변수로 간주되는 미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및 교직원은 주로 국가공무원으로서 비교적 동질적 급여수준을 향유한다는 점에 비추어 특별히 교육성과와 관계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3-2] 본 연구의 교육복지 지출 구분[16]

계정명 (정책사업)	사업 내용	계정명(단위사업)	
		보편	선별
인적자원운용	교직원보수 등 인적자원 운용 제 사업비	해당 없음	
학생복지/ 교육격차해소	학생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제 사업비	급식관리 기숙사관리 보건관리 기타학생복리서비스	교육격차해소 학생장학지원
기본적 교육활동	표준 교수학습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제 사업비	교과활동 특별활동(재량,체험)	·
선택적 교육활동	표준 교수학습 활동이 아닌 선택적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교기육성 독서활동 (평생교육, 직업교육, 국제교육, 기타선택적교육활동)	방과후학교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수학습 간접 교육비로 교육활동 지원 제 사업비	광의의 교육복지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 (본 연구에서는 교육활동지원 지출로 따로 구분하여 분석에 포함시켰음)	
학교 일반운영	학교 기관 및 부서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	광의의 교육복지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	
학교 시설확충	대규모 수선비, 교실 증·개축 등 시설 사업비		
학교 재무활동	목적사업비 반환 및 예비비 관리 등 비 사업성 재무활동	해당 없음	

16) 선택적 교육활동 계정 중 평생·직업·국제교육과 기타선택적교육활동 관련 지출 수준은 초등학교에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편과 선별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지만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통제 변수 : 학교 특성, 교수학습 여건, 학교 소재지

독립변수인 1인당 교육복지지출과 종속변수인 학업성취도 학생비율간의 인과관계 검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3변수를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교육복지지출 외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7]들이다.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는 학교 외부 요인이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유전적 요인 및 학교 내부요인인 학교 특성, 교사 특성, 동료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다양한 통제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모형에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통제변수를 설정하겠다.

(1) 학교 특성 : 자체수입비율, 학교 규모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학교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남수경·김태영(2013)은 학교의 특성이 학교 전체의 교육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간접적 경로를 통해 학생 개인 수준의 변인과 학생의 학업성취도로 대변되는 교육성과에 중재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학교 특성에는 학교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교 규모 및 학교의 유형 등이 있다. 특히 Palardy(2008)는 사회·경제적배경이 낮은 학생들로 구성된 학교 교육취약집단이 밀집한 학교[18]라는 학교특성에 따라 학교효과가

17) 백일우(2000)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관련요인, 동료학생관련요인, 개인능력관련요인, 가정배경관련요인 4가지를 제시하였다.
18) 교육취약집단이 밀집한 학교는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학생들로 구성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에 취약집단 학생의 비율이 높다면, 예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광역 교육청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직접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인당 선별적 교육복지 지출 금액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 교육복지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특별지원학교 및 일반지원학교를 구분하여 특별지원학교의 경우 선별 대상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복지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한유경, 2013) 학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학교수준 연구에서 단위학교의 이러한 특성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균적인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자체수입비율이라는 지표를 고려하였다. 학교의 자체수입비율은 국가 및 지자체 이전수입 대비 자체수입 비율로 정의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자체 수준의 이전수입 금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의 가정이 자체적으로 수업료 등을 지불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며 자체수입[19]이 높다면 이는 간접적으로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들의 가정형편 상황이 평균적으로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체수입비율은 학교의 평균적인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 규모는 학생들에게 가장 의미있는 교육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는 적정 규모와 관련하여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다. 미국에서는 소규모학교들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학교 규모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Weiss et

---

학교를 의미한다.

19) 학교 자체수입에는 학부모가 내는 수업료, 특별활동비 등이 포함된다.

al., 2009).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eithwood & Jantzi(2009)는 초등학교의 경우 300명 정도의 학교를 적정규모의 학교로 보았으며, Eric Development Team의 보고서에 의하면 적정 규모 학교의 최대치를 350명으로 보았다(박삼철, 2012에서 재인용).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이혜영 외(2010)는 소규모학교는 비효율적 교육재정구조를 갖고 있으며 대규모 학교의 2~3배에 달하는 학생 1인당 총교육비를 지출하지만,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학급 규모로 인해 복식학급 구성과 상치교사 배치 등이 불가피하여 낮은 학업성취도를 달성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하였다. 학교 규모의 경우 그 자체로 학교 특성이기도 하지만 교수학습 환경에 있어 학교 규모가 적정할수록[20] 원활한 또래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동료(peer) 요인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반면 소규모학교가 교육성과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작은 학급 규모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되며, 교사들이 개별 맞춤식 수업[21]을 진행할 수 있어 의미 있는 교육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천순 외(2011) 학급규모가 감소할수록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영어와 수학과목에서 증가한다고 밝혔으며, 권용재·이광현(2010) 역시 학생 수 감소 시 국어와 영어 학업성취도는 일정부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의 규모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 가능여부 및 동료 학습 여부, 맞춤식 수업 여부 등을 통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에 통제 변수로 고려하였다.

한편 학교 유형과 관련하여 Coleman, Hoffer, & Kilgore(1982)의 연구결

20) 학교(학급) 규모가 너무 작은 경우 동료 학습의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21) Jimmerson(2006)이 주장하는 것처럼 학교와 학급 규모가 작을수록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 증대 및 개별화 수업이 가능하여 교육적 성과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윤홍주 2014, 재인용)

과에 따르면 미국 학생들의 언어, 수학능력은 공립학교 재학 중인 학생보다 사립이나 가톨릭계 학교의 학생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의 결과로 인해 성취도가 높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 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경우 전국의 국·공립 초등학교를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공·사립의 차이, 중·고등학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학교유형의 차이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이질성 문제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교수학습 여건 : 비정규직 교사비율, 교사 당 학생 수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교육계의 전통적 명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사로 대표되는 교수학습여건 역시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먼저 교사와 관련한 요인에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교사의 기대수준, 교사의 학력이나 경력, 교사의 급여 및 교사의 질 등이 포함된다(임천순 외, 2011). Crampton(1995)은 교육경력이 많고 고학력인 교사 채용은 학업성취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교사요인을 통제할 때 고려하는 공통적인 변수로 교사의 급여수준, 학위, 비정규직 여부 등이 있다.

임천순 외(2011)는 비정규직 교사의 비율이 높을수록 학업의 성취가 낮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기간제 교사, 전일제 강사, 시간강사를 제외한 정규직 교사비율을 교수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교육복지사업의 경우 정규 교수학습활동 외에도 방과 후 학교나 특별활동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에 투입되는 시간강사 및 전일제 강사 비율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 문

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체 교사 대비 비정규직(기간제)교사 비율을 통제 변수로 설정하였다.

(3) 지역 요인 : 학교 소재지

이현숙 외(2011)는 학교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socio-economic status)가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학교를 분석단위로 하는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이며, 이러한 가정배경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임천순 외, 2011).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추측할 수 있는 대리 변인들이 활용되는데 대표적인 대리변수로 급식비지원비율[22]이 해당된다(임천순 외, 2011; 김지하, 2014).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8년부터 교육복지 관련 예산이 지방에 이양되면서 지자체 및 광역교육청의 재정 상황에 따라 급식비지원 등이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즉 학교가 속한 지역에 따라 급식비를 지원하는 기준, 지원 액수 등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23]. 따라서 학교의 사회·경제적상황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서 급식비지원비율은 동일 지역, 동일 교육청 내부에 속한 학교들의 상황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는 타당할 것이나 전국의 학교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특성 중 자체수입비율을 학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

22) Nuttall(1989) 무료급식학생비율이 높은 학교의 경우 성취도가 더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23) 임천순 외(2011) 역시 학생의 사회·경제적배경을 통제하기 위한 대리변수로 급식학생지원비율과 학교의 소재지를 꼽았으며, 급식학생지원비율은 시도별로 지원학생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활용하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타내는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이에 추가적으로 학교 소재지를 통제하는 것으로도 학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할 수 있다. 학교가 속한 지역 특성이 동일할 경우 평균적인 부모의 학력 및 소득 수준, 지역 사교육 활성화 정도 등이 어느 정도 동질적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처 고려하지 못한 여러 학교 특성 요인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4]. 단, 지역을 구분하되 행정구역 상 지역구분이 아닌 에듀데이터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역구분, 즉 학교소재지를 특별시, 광역시, 읍·면, 특수지역(도서·산간지역)으로 나누어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나아가 [그림 3-2] 개념적 준거틀의 조절변수로 학교 소재지를 고려하겠다.

24) 다만, OECD(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국가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기준).

[표 3-3] 본 연구의 변수 정의

구분	변수		변수 설명
독립변수	1인당 보편적 교육복지지출		2011년 각 학교의 보편적·선별적 교육복지 지출을 학교의 총학생 수로 나눈 것
	1인당 선별적 교육복지지출		
	1인당 간접 교수학습활동지출		광의의 교육복지에 속하는 간접 교수학습 지출 및 학교 운영지출도 함께 분석
	1인당 학교(시설)운영관련지출		
종속변수	국어보통학력 학생비율		보통이라 함은 교수학습내용을 50%이상 이해한 상태를 의미하며 20%미만인 경우 기초학력미달로 정의
	국어기초학력미달 학생비율		
	수학보통학력 학생비율		
	수학기초학력미달 학생비율		
통제변수	학교 특성	학교 규모	총 재학생 수
		자체수입비율	국가/지자체 지원 이전수입 대비 학교 자체수입 비율
	교수 학급 여건	비정규직 교사비율	비정규직교사÷총교사(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시간강사 모두 포함)
		교사 당 학생 수	총학생수를 총 교사수로 나눈 값 (단,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교사에 한함)
	학교 소재지	특별·광역시	모든 지역은 배타적(exclusive)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광역시-군-면에 속할 경우 면으로 분류됨. 특수지역은 도서산간지역을 의미
		시	
		읍	
		면	
		특수지역	

제4장 연구 방법

제1절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자료는 EDSS에서 제공하는 에듀데이터이다. 에듀데이터는 2011월 3일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2014년 10월 기준으로는 초중등 교육데이터 7개 분야(학교정보공시, 초중등교육통계, 대학수학능력시험자료, 국가학업성취도평가자료, 특수교육통계, 나이스자료, 에듀파인자료)와 고등교육통계 4개 분야(대학정보공시, 고등교육통계, 취업통계, 평생교육통계)등 총11개 분야의 데이터세트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교 에듀데이터는 학교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전국 초·중등 개별학교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특히 학교에 대한 표집이 아닌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결과를 통해 교육 및 인재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임천순 외, 2011). 이 중 초·중등 교육통계에 나와있는 학생 및 교원, 교육활동 시설 등 통계현황과 에듀파인의 학교회계자료의 예·결산 자료 및 학업성취도평가자료를 결합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한 후 분석을 진행한다.

제2절 분석 대상과 범위

학교의 교육복지 관련 지출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 연구 대상이자 분석 단위(unit of analysis)는 전국의 3939개 국·공립 초등학교이며 이는 원래 에듀데이터[25]에서 제공하는 전체

25) 에듀데이터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데이터를 연구자에게 제공할 시 대표성을 확

3978개 국·공립 초등학교 중 교육비 지출 및 성취도 정보에 결측이 있는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 해당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시차문제를 고려하여 2011년~2012년으로 설정하였다. 지출과 성과간의 시차를 고려하고 역인과(reverse causality)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의 지출이 2012년 및 2013년도의 학업성취도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2013년 학업성취도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지출 다음 해에 해당하는 2012년도만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제3절 분석 모형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분석 데이터를 대상으로 계량적 연구방법(quantitative method)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분석, 그리고 횡단자료를 기초로 한 일반최소자승회귀분석[26](ordinary least square linear model : OLS)을 실시하되 통제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회귀모형을 검증하는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단계적 회귀모형을 실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통제변수로 고려한 특성들을 순차적으로 대입해 보면서 모형적합도(R^2)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함이고, 둘째는 통제변수가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회귀계수를 갖는 설명변수를 찾기

보한 전체 중 70% 학교를 층화추출하여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6) 교육생산함수 모델 중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다변량회귀분석 모델은 At = a + b1Fti(t기간동안 가정요인 (부모의 교육정도, 사회·경제적배경, 인종, 언어) + b2Ttj (t기간동안 교사요인 (교사자격, 경력, 교육정도, 봉급수준)+ b3OStk (학급규모, 시설, 교재, 교육과정) +ε 형태로 나타난다.

위한 Robust check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4-1] 단계적 회귀분석을 위한 다중회귀모형

$$Y_i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 \beta_6 D_1 + \beta_7 D_2 + \beta_8 D_3 + \beta_9 D_4 + e_i$$

Y_i : 국어 및 수학 성취도 (보통이상·기초미달 학생 비율)
X_1 : 1인당 교육복지지출 (보편적·선별적 복지지출)
X_2 : 1인당 기타지출 (간접적 교수학습·기타 운영지출)
X_3 : 학교 특성 변수
X_4 : 교수·학습 특성 변수
D_5, D_6, D_7, D_8 : 지역 특성 더미 변수 (D_5, D_6, D_7, D_8은 각각 시,읍,면,특수지역)
e_i : 오차항

나아가 통제변수 중 학교의 사회·경제적수준을 비롯한 다양한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변인에 따라 교육복지지출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학교가 속한 지역 더미변수[27]를 조절변수로 보고 지역 더미와 보편·선별적 교육복지 지출 간 상호작용항을 고려한 모형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겠다.

27) 모형1과 달리 모형2에서는 특별·광역시와 시에 속한 학교를 기준(reference)으로 하여 읍, 면 및 특수지역의 두 그룹을 더미(dummy)화하여 지역을 총 3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세 가지 지역으로 나눈 이유는 제5장 제1절의 기술통계분석 중 box plot의 결과를 통해 제시하였다.

[그림 4-2]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다중회귀모형

$$Y_i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D_1 + \beta_6 D_2$$

$$+ \beta_7 X_1 D_1 + \beta_8 X_1 D_2 + \beta_9 X_2 D_1 + \beta_{10} X_2 D_2 + e$$

Y_i : 국어 및 수학 성취도 (보통이상·기초미달 학생 비율)
X_1 : 1인당 보편적 교육복지 지출
X_2 : 1인당 선별적 교육복지 지출
X_3 : 학교 특성 변수
X_4 : 교수·학습 특성 변수
D_1, D_2 : 지역 특성 더미 변수 (단, D_1, D_2 각각 읍, 면+특수지역)
e_i : 오차항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 SPSS v21.0을 활용하겠다.

제5장 분석 결과

제1절 기술통계 분석

1. 독립변수 : 교육복지 지출 수준

먼저,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1인당 교육복지 지출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 기준 전국 3939개[28] 국·공립초등학교의 교육복지 지출 및 기타 지출 수준을 살펴보겠다.

[표 5-1] 전국 국·공립 초등학교 1인당 교육복지 지출 수준

(단위: 천원)

	최솟값	최댓값	평균	전체대비 비중	표준편차
1인당 보편적 교육복지 지출	2.7	14,871	987.5	0.27	873.8
1인당 선별적 교육복지 지출	0	11,601	819.8	0.22	959.0
1인당 교육활동지원 지출	2.0	13,722	660.3	0.18	927.4
1인당 학교(시설)운영 지출	0	32,030	1,146.5	0.32	1,694.5

2011년의 국·공립 초등학교의 1인당 교육복지지출은 약 1797.3천원으로 전체 교육비 지출 중 약 49.8%인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인당 보편적 교육복지지출이 987.5천원으로 전체 교육비 대비 27%, 교육복지지출 대비 55%에 해당하였고, 1인당 선별적 교육복지지출이 819.8천원으

28) 에듀데이터에서 제공한 통계자료 중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활용한 2011년도 예결산 지출에 대한 결측치가 있는 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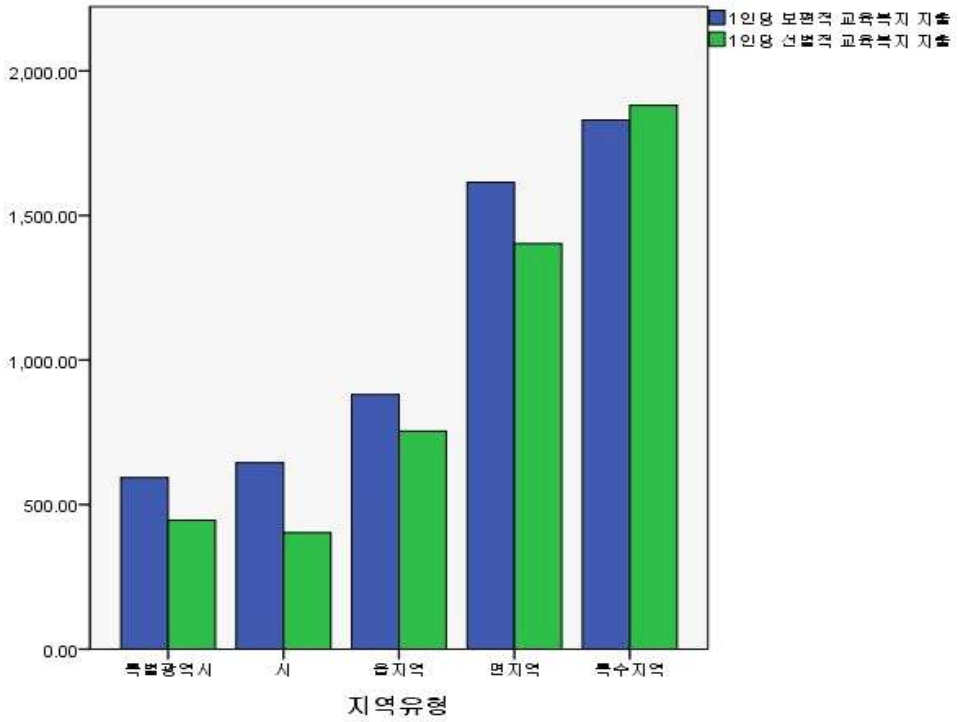
로 전체 교육비 대비 22%, 교육복지지출 대비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 1인당 교육복지지출은 보편적 교육사업과 선별적 교육사업에 비교적 고르게 나누어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2014)의 전체 교육복지 사업 중 사업내용 및 대상별에 따른 교육복지투자 유형별 비중은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이 2011년 2조 5,746억원으로 전체 교육복지투자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56.0%, 선별적 교육복지사업은 44.0%에 해당한다는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는 1인당 지출에 해당하며 선별적 복지지출은 선별 기준을 충족한 대상에게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공립 초등학교 교육복지사업에 한하여 각 시·도교육청에게는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정 충당 압박이 더욱 클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29].

다음은 지역 유형별 1인당 보편적 교육복지지출 및 선별적 교육복지지출 평균을 살펴보겠다. 에듀데이터에서 제공하는 범주에 따라 다섯 개의 지역 유형으로 나누어 본 1인당 교육복지 지출수준은 [그림 5-1] 및 [표 5-2]와 같다. 전반적으로 특별·광역시에서 시, 읍, 면, 도서산간지역에 해당하는 특수지역 순으로 1인당 보편적 교육복지지출, 선별적 교육복지지출, 교육활동지원지출, 시설운영지출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9) “한편, 보편적 교육복지 지출의 경우 2013년 5조 3,297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1년에 비하여 전체 교육복지지출 대비 2012년 65.2%, 2013년 74.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별적 복지지출의 경우 2012년 2조 1,31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 들어 1조 8,322억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교육복지지출 대비 비중도 2013년 25.6%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저소득층이나 농산어촌 학생, 특수학생 등과 같은 경제적·사회적·교육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교육복지의 축소가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4).

[그림 5-1] 전국 국·공립 초등학교 1인당 교육복지 지출 수준

(단위 : 천원)



평균적인 지출액 자체뿐만 아니라 지출액의 표준편차 역시 동일한 순서대로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대도시보다 소규모 지역단위에 해당하는 학교들의 평균 지출액 수준이 크면서도 그 지출액 수준의 차이가 학교마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광역시의 경우 1인당 보편교육복지지출은 약 593천원이며, 선별적 교육복지지출은 446천원이었다. 시의 경우 1인당 보편교육복지지출은 645천원, 선별적 교육복지지출은 403천원으로 나타나 특별시나 광역시에 비해 보편적 교육복지지출 수준은 더 높고 선별적 교육복지지출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편과 선별적 지출의 차이 자체도 더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읍지역의 경우 1인당 보편 교육복지지출은

880천원, 선별적 지출은 754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절대적 지출 수준은 특별·광역시나 시에 비해 모두 높지만 보편과 선별 교육복지간 지출 금액 차이는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과 특수지역의 1인당 보편 및 선별적 교육복지 지출 금액은 특별·광역시에 비해서는 약 3배 이상, 읍지역에 비해서는 2배 이상으로 나타나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지역별 국·공립 초등학교 1인당 교육비 지출 수준

(단위 : 천원)

지역유형	1인당 보편 교육복지지출		1인당 선별 교육복지지출		1인당 교육 활동지원지출		1인당 학교 시설운영지출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특별·광역시 (N=1072)	593.2	283.7	446.0	240.4	328.7	308.8	408.5	445.3
시 (N=1133)	644.8	260.5	402.8	339.8	261.8	429.2	481.1	601.5
읍지역 (N=445)	880.0	466.5	754.3	865.4	598.7	680.8	1018.3	1209.1
면지역 (N=1056)	1615.0	1096.8	1402.9	1142.7	1226.8	1101.8	2104.0	1786.9
특수지역 (N=233)	1829.8	1597.0	1880.6	1797.5	1674.6	1751.7	3682.7	3660.3

한편, 가설3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성한 두 번째 다중회귀모형의 경우, 특별·광역시와 도에 속한 시 지역에 해당하는 2205개 학교를 기준(reference group)으로 읍지역에 해당하는 445개 학교를 비교그룹1로, 면 및 특수지역 1289개 학교를 비교그룹2로 하여 상호작용항을 구성한 후 교육복지지출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지역 유형을 이와 같이 나눈 이유는 [그림 5-2]에서

볼 수 있듯이 비슷한 지출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묶어 조절변수로 반영함에 따라 추후 결과분석으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가 보다 타당하고 현실 적용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표 5-3] 새로운 지역구분별 국·공립 초등학교 1인당 교육비 지출 수준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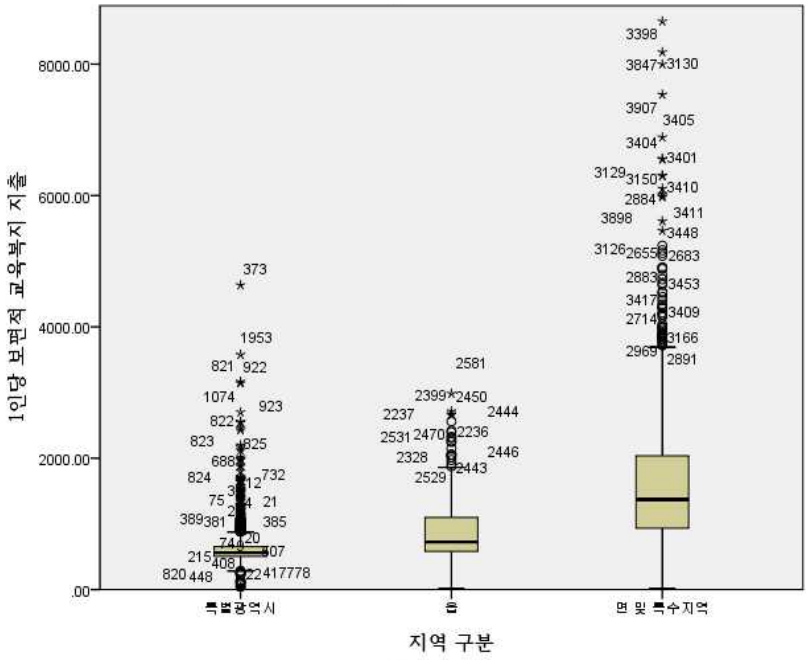
지역 구분		1인당 보편적 교육복지 지출	1인당 선별적 교육복지 지출	1인당 교육활동지원 지출	1인당 학교(시설) 운영 지출
특별광역시+시 (2205)	평균	619.7	423.8	294.3	445.8
	S.D.	273.2	296.4	376.9	532.4
읍 (445)	평균	880.0	754.3	598.7	1,018.3
	S.D.	466.5	865.4	680.8	1,209.1
면+특수지역 (1289)	평균	1,653.8	1,489.2	1,307.8	2,389.4
	S.D.	1,204.8	1,298.2	1,255.7	2,323.4

먼저 기준그룹인 특별·광역시 및 시의 경우 1인당 교육비 지출에 있어 보편적 교육복지, 학교(시설)운영, 선별적 교육복지, 교육활동지원 순으로 교육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읍과 면, 특수지역의 경우 학교(시설)운영에 소요되는 1인당 교육비 지출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소규모 지역의 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설 개선 등에 더욱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인당 교육비의 절대적 수준으로 보면 면 및 특수지역이 읍에 비해 약 2배, 특별·광역시 및 시에 비해 3배~5배 가량 지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복지지출을 살펴보면 특별·광역시 및 시에 해당하는 기준지역 및 읍지역의 경우 각각 1인당 보편적 교육복지

지출은 각각 620천원, 880천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선별적 교육복지지출은 약 424천원, 754천원으로 나타나 1654, 1489천원인 면 및 특수지역에 비해서는 1/3~1/2 수준이며, 두 지역 간 평균적 지출 수준은 상대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 새로운 지역구분별 1인당 보편적 교육복지 지출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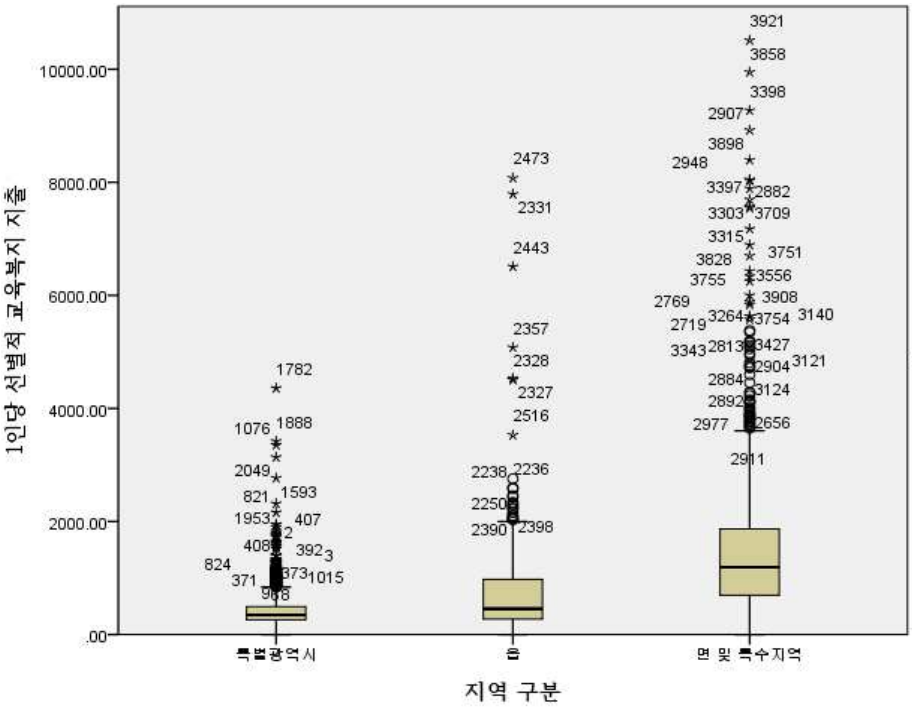


특별·광역시 및 시의 경우 다른 두 지역에 비해 1인당 보편 교육복지지출의 절대적인 수준이 평균적으로 가장 낮으면서도 그 분포가 학교마다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읍지역, 면 및 특수지역으로 갈수록 평균적 지출수준은 높아지면서 학교 간 지출차이 역시 더욱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3]에서 볼 수 있듯 선별적 교육복지지출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띤다. 학생 1인당 평균적인 선별적 교육복지 지출 금액은 특별·광역시,

시, 읍지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읍지역의 경우 학교마다 편차[30]가 크게 나타났으며 면 및 특수지역의 경우에는 1인당 선별적 교육복지 지출 금액도 약 2배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학교간의 차이 역시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3] 새로운 지역구분별 1인당 선별적 교육복지 지출

(단위 : 천원)



30) box plot의 해석 시 IQR(Interquatile-range)을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분포의 25%~75%에 해당하는 주요집단(main body)으로 그 집단의 평균적 특성을 잘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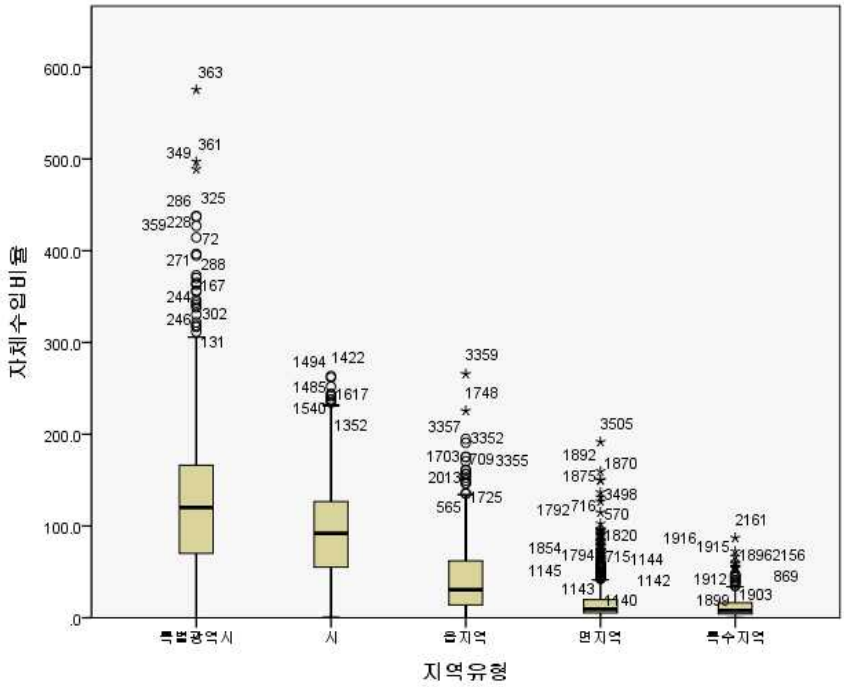
2. 통제 변수

1) 학교 특성 : 자체수입비율, 학교 규모(총학생수)

[그림 5-4]는 지역유형에 따른 학교의 자체수입비율 분포를 보여준다. 학교의 자체수입비율(국가 및 지자체 이전수입 대비 자체수입)은 각 학교의 예·결산서의 세입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별·광역시에서 시, 읍, 면, 특수지역으로 갈수록 학교의 자체수입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4] 지역유형에 따른 자체수입비율 분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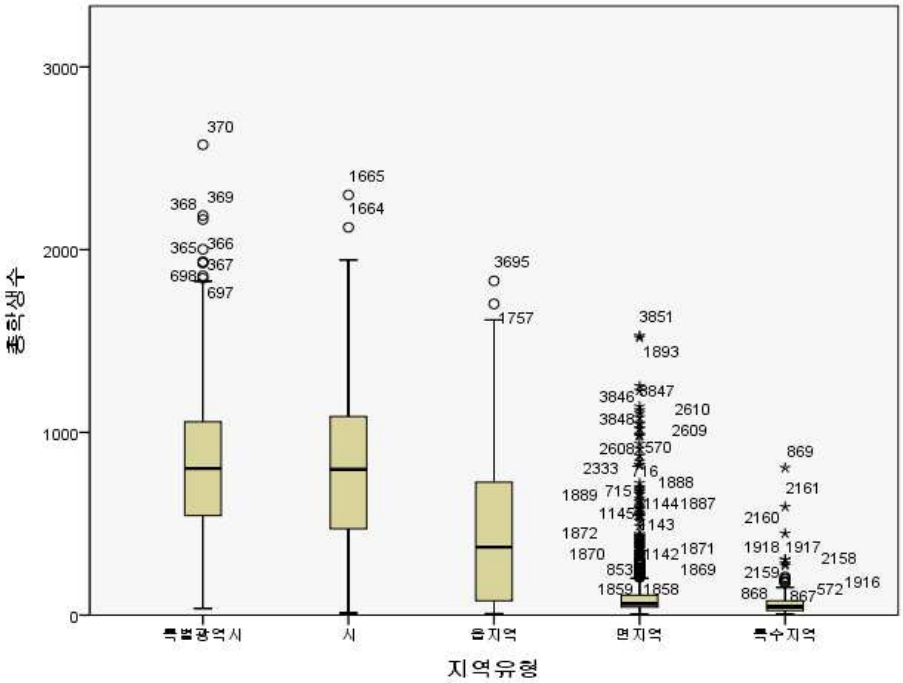
전술한 바와 같이 자체 수입비율은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들의 평균적인 사회·경제적 상태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자체수입비율이 100을 넘는 특별·광역시의 경우 평균적으로 사회·경제적 여건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면 및 특수지역으로 갈수록 자체수입[31]보다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 유형에 따라 학생 수로 대표되는 학교의 규모 역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5-5]를 살펴보면 먼저 특별·광역시와 시의 경우 총 학생수는 평균적으로 819명, 790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읍지역은 456명, 면 및 특수지역은 각각 119명, 66명으로 나타나 지역 간 학교규모의 차이가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학교의 규모 차이는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 원활한 동료(peer)학습 가능여부 등을 통해 교수학습 과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별의 적정성 등을 통해 상이한 정책효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1) 학교 자체수입에는 학부모가 내는 수업료, 특별활동비 등이 포함된다.

[그림 5-5] 지역유형에 따른 학교규모(총학생수) 분포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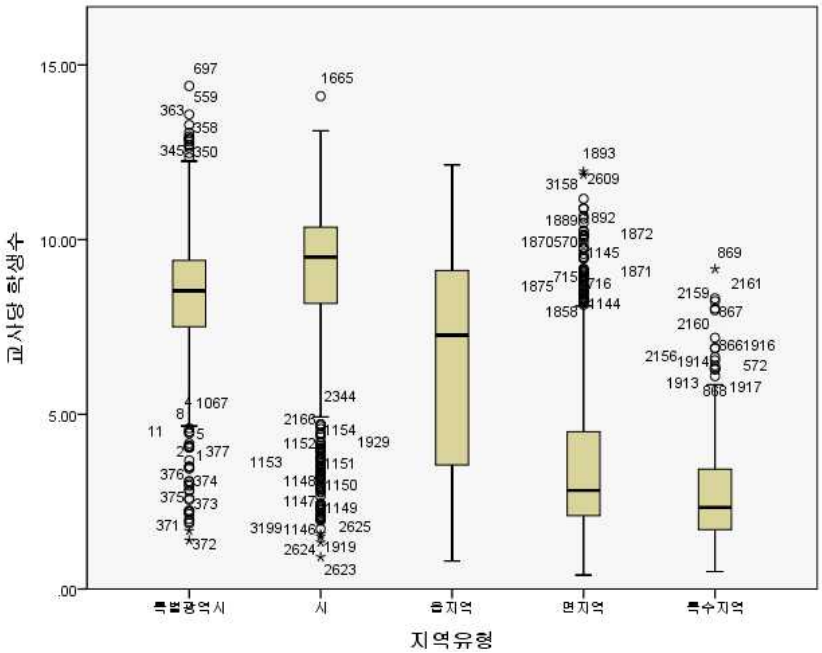
2) 교수·학습 특성 : 교사 당 학생 수, 비정규직 교사 비율

교수·학습 특성 중 교사 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특별·광역시의 경우 8.39명, 시는 8.97명, 읍지역은 6.63명, 면지역 및 특수지역은 각각 3.54명, 2.81명으로 나타나 소규모의 지역 유형으로 갈수록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읍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학교별 교사 당 학생 수 분포 범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읍지역 학교들의 어떠한 특성이 타 지역과 구별되는 현상을 유발하였는지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교사 당 학생 수가 많을 경우 개별적으로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이 조성되기 쉽지 않다. 특히 교육취약계층의 경우 학습 능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성취동기가 매우 낮을 수 있는데, 교사가 지도해야 할 학생이 많을 경우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선별적 교육복지사업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사 당 학생 수 역시 중요한 학교 특성으로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그림 5-6] 지역유형에 따른 교사 당 학생 수 분포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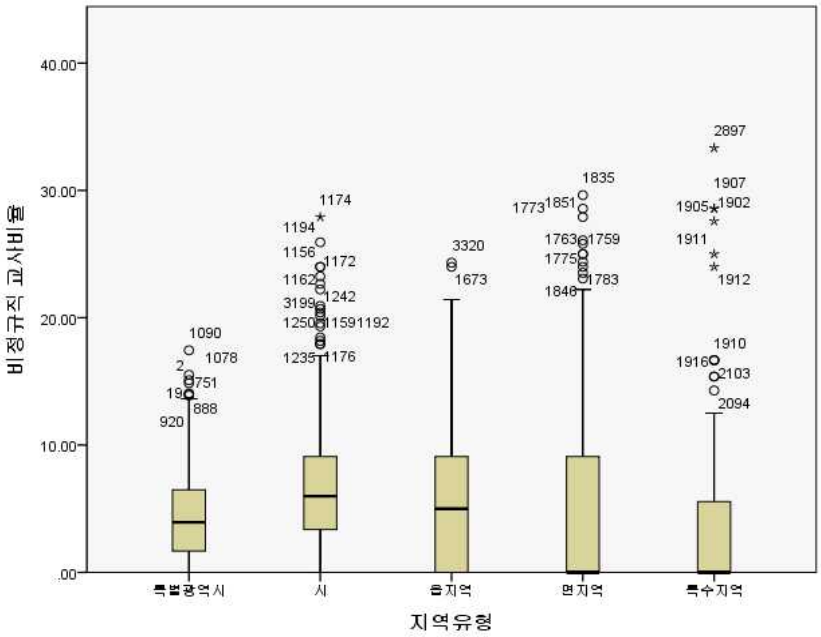


임천순 외(2011)등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비정규직 교사비율은 학업성취도와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상정된다. [그림 5-7]에 따르면 특별·광역

시, 시, 읍지역의 경우 총 교사 대비 비정규직 교사비율의 평균이 약 4.3~6.5% 정도이고 중위값이 4.9~5.9%인 반면 면 및 특수지역은 중위값이 0%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분포가 곧바로 면 및 특수지역이 특별·광역시, 시, 읍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을 것이라는 결론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교사를 채용하고 싶어도 소규모지역의 학교에서 여건이 여의치 않거나, 아예 교육과정 외 다양한 특별 교수·학습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여 이에 투입되는 비정규직 교사 및 시간제 강사 등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특성들이 학업성취도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 것인지는 불분명할지언정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여건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림 5-7] 지역유형에 따른 비정규직 교사비율 분포

(단위 : %)



[표 5-4] 지역구분별 학교, 교수·학습특성변수 기술통계량

(단위 : 명, %)

지역유형		총학생수	교사 당 학생 수	비정규직 교사비율	자체 수입비율
특별광역시 (1072)	평균	818.5	8.4	4.3	126.8
	표준편차	384.5	1.8	3.3	76.1
시 (1133)	평균	790.4	9.0	6.5	94.8
	표준편차	423.4	2.2	4.5	50.7
읍지역 (445)	평균	456.0	6.6	5.5	44.2
	표준편차	403.5	3.0	4.9	41.8
면지역 (1056)	평균	118.6	3.5	4.8	16.8
	표준편차	175.6	2.1	6.1	20.4
특수지역 (233)	평균	66.2	2.8	3.1	13.2
	표준편차	82.5	1.6	5.8	14.0
전체 (3939)	평균	537.4	6.7	5.1	72.1
	표준편차	468.6	3.2	4.9	68.7

3. 종속 변수 : 학업성취도 수준

본 연구의 대상인 국·공립초등학교 3939개의 학업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보통 수준 이상 학생 비율로 대표되는 일반적 학업성취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 및 기타 교육비가 투입되는 2011년 및 그 결과로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활용될 2012년의 학업성취도를 세 지역 구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1년의 경우 특별·광역시 및 시, 읍의 경우 국어 과목에 대한 보통 이상의 성취도를 달성한 학생이 평균적으로 82.2%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 2012년의 경우 특별·광역시 및 시 지역의 학교에서 읍 지역의 학교보다 보통 이상의 국어 학업성취도를 달성한 학생이 약 2%p정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국어 및 수학 모두에서 면 및 특수지역에 속한 학교의 학생들의 성취도가 특별·광역시, 시, 읍지역 등 지역의 규모 및 학교 규모, 학생 수 등이 더 많은 학교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면 및 특수지역 등 소규모 학교의 학습 환경이 열악하여 학습 성취도가 낮을 것이라는 기존의 생각과 배치되는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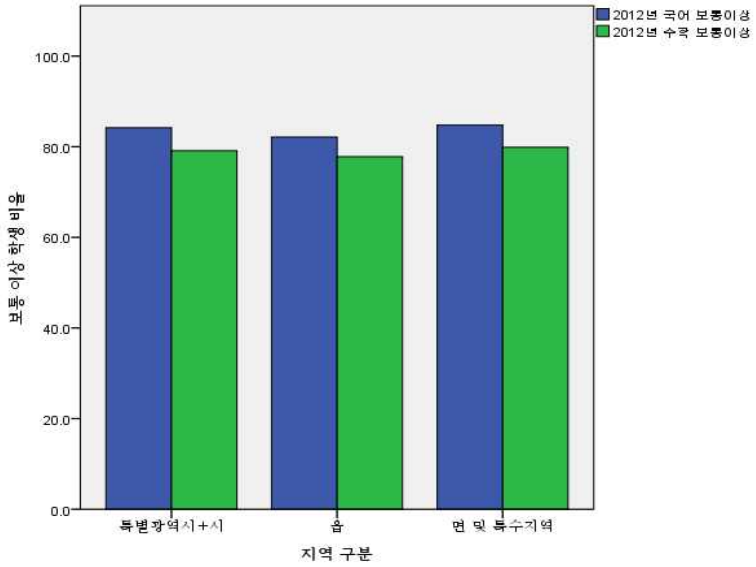
[표 5-5] 2011년 및 2012년 보통 이상 학업성취도 학생 비율

(단위 : %)

		2011년 국어 보통이상	2012년 국어 보통이상	2011년 수학 보통이상	2012년 수학 보통이상
특별광역시 및 시 (2204)	평균	82.2	**84.2**	79.3	**79.1**
	표준편차	8.8	8.6	10.5	11.4
	중위수	83.2	84.8	80.3	80.1
읍 (443)	평균	82.2	**82.1**	79.7	**77.8**
	표준편차	11.3	11.6	14.0	16.1
	중위수	82.4	83.0	80.0	78.9
면 및 특수지역 (1282)	평균	84.0	**84.8**	80.1	**79.9**
	표준편차	15.1	14.9	18.9	19.5
	중위수	85.7	86.7	83.3	83.3

[그림 5-8] 지역에 따른 2012년 보통 이상 학업성취도 학생 비율

(단위 : %)



다만 이와 같은 기술통계의 경우 제 3변수의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눈에 보이는 결과 그대로 받아들여 작은 규모의 지역, 학교, 학생 수가 학업성취도를 높인다는 단순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기초 미달 학생 비율로 대표되는 취약계층의 학업성취도

[표 5-6] 2011년 및 2012년 기초 미달 학업성취도 학생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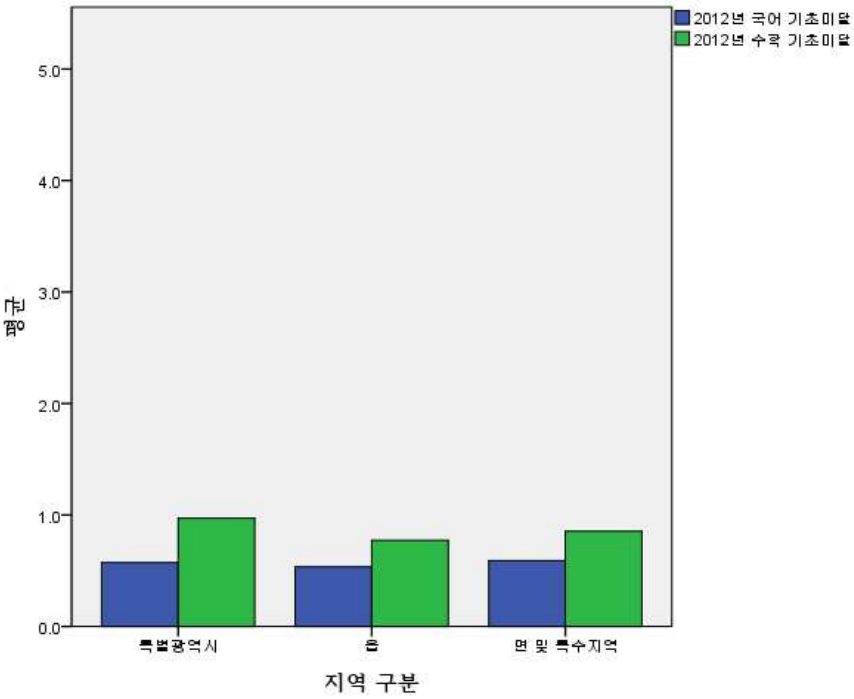
		2011년 국어 기초미달	2011년 수학 기초미달	2012년 국어 기초미달	2012년 수학 기초미달
특별광역시 및 시 (2204)	평균	0.70	1.12	0.57	0.97
	표준편차	1.10	1.54	0.94	1.51
	중위수	0.40	0.70	0.00	0.50
읍 (443)	평균	0.59	0.84	0.54	0.77
	표준편차	1.67	2.02	1.94	2.22
	중위수	0.00	0.00	0.00	0.00
면 및 특수지역 (1282)	평균	0.58	0.78	0.59	0.85
	표준편차	2.78	3.32	3.77	3.13
	중위수	0.00	0.00	0.00	0.00

기초 미달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국어의 경우 2011년에는 특별·광역시 및 시에 속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2년의 경우 면 및 특수지역이 기초 미달 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학 과목은 2011년과 2012년 모두 특별·광역시 및 시에 속하는 학교의 기초 미달 비중이 높았으나 2011년 대비 기초 미달 학생 비중의 증가율은 면 및 특수지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2011년 이후

각 지자체로 이양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교육복지사업의 효과로서 상대적으로 큰 지역에 속하는 학교의 경우 선별적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도출된 결과인지는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5-9] 지역에 따른 2012년 기초 미달 학업성취도 학생 비율

(단위 : %)



제2절 상관 분석

데이터 분석에서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값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5-6]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 나타낸 것이다. 대체로 교육비 지출 간에는 정(+)의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로 전체 3939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 상관관계 분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도시의 경우 자체수입비율은 높은 반면 1인당 지출 수준은 낮기 때문에 (-)의 상관관계가 도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상관 계수의 절대값이 0.7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공차 및 VIF값을 통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심각한지를 평가해볼 수 있다. 보통 VIF값이 4이하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VIF값이 10이하이고 공차가 0.1이상인 경우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표 5-7]에 따르면 각 변수간 VIF값이 10이하, 공차가 0.1이상인 공선성 통계량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본 연구의 변수 설정 및 분석에 큰 문제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5-7] 본 연구의 독립 변수 및 통제 변수 간 Pearson 상관계수

ln(1인당 보편복지지출)	ln(1인당 선별복지지출)	ln(1인당 교육활동지원 지출)	ln(1인당 학교·시설운영 지출)	총 학생수	자체수입비율	교사당 학생수	비정규직 교사비율
1	.668**	.708**	.747**	-.604**	-.500**	-.683**	-.076**
	1	.704**	.717**	-.576**	-.428**	-.653**	-.106**
		1	.803**	-.741**	-.540**	-.835**	-.117**
			1	-.780**	-.620**	-.855**	-.085**
				1	.718**	.888**	.087**
					1	.682**	.054**
						1	.079**
							1

N=3939

*** p 〈0.01 ** p 〈0.05 * p 〈0.1

[표 5-8] 독립·통제변수간 다중공선성 진단(공차, VIF)

모형		공선성 통계량	
1	(상수)	공차	VIF
	1인당 보편적 교육복지 지출(로그변환)	.394	2.538
	1인당 선별적 교육복지 지출(로그변환)	.425	2.354
	1인당 교육활동지원 지출(로그변환)	.312	3.202
	1인당 학교(시설)운영 지출(로그변환)	.278	3.600
2	(상수)		
	1인당 보편적 교육복지 지출(로그변환)	.391	2.558
	1인당 선별적 교육복지 지출(로그변환)	.422	2.368
	1인당 교육활동지원 지출(로그변환)	.281	3.561
	1인당 학교(시설)운영 지출(로그변환)	.221	4.529
	총학생수	.274	3.645
	자체수입비율	.472	2.120
3	(상수)		
	1인당 보편적 교육복지 지출(로그변환)	.391	2.559
	1인당 선별적 교육복지 지출(로그변환)	.421	2.373
	1인당 교육활동지원 지출(로그변환)	.241	4.148
	1인당 학교(시설)운영 지출(로그변환)	.199	5.031
	총학생수	.187	5.358
	자체수입비율	.466	2.145
	교사 당 학생 수	.122	8.193
	비정규직 교사비율	.981	1.020

제3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1. 단계적 회귀분석[32] 결과

1) 교육복지지출이 일반적 학업성취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보통 이상의 학업성취도를 가진 학생 비율을 높이는데 교육복지지출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교육복지 관련 지출 및 교육활동지원 지출, 학교시설운영지출과의 관계를 살펴보고(모형1) 학교특성에 해당하는 총 학생수, 자체수입비율을 고려하였을 때(모형2), 다음으로 교수학습특성에 해당하는 교사 당 학생 수 및 비정규직 교수비율을 통제(모형3), 마지막으로 기타 지역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학교의 특성, 대표적으로 학교의 사회·경제적특성 등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지역요인까지 통제(모형4)하여 단계적으로 회귀계수를 살펴보았다.

국어 과목의 보통이상 학업성취도에 대한 각 모형의 F값이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하였으나, 모형 적합도가 0.003에서 0.032로 낮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보편적 교육복지지출과 선별적 교육복지지출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어 보통이상 성취도에 대해서 가설 1 및 가설 2는 지지되지 못했다.

---

32)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통제변수로 고려한 특성들을 순차적으로 대입해보면서 모형적합도( )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함이고, 둘째는 통제변수가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설명 변수가 안정적인 회귀계수를 갖는지 Robust test를 하기 위해서이다.

[표 5-9] 보통 이상의 국어 성취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B)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보편적 교육복지지출	.248	.362	.343	.390
선별적 교육복지지출	.476	.306	.264	.187
교육활동지원 지출	.852	1.388***	.797***	.651
학교(시설)운영 지출	-1.138	.073	-.369	-.244
총학생수		.003***	.005***	.004***
자체수입 비율		.018***	.019***	.017***
교사 당 학생 수			-.641***	-.403**
비정규직 교사비율			-.160***	-.136***
시				-1.737***
읍				-1.604***
면 및 특수지역				.674
F	4.419***	13.592***	14.445***	12.537***
adjusted R^2	0.003	0.019	0.027	0.032

*** p 〈0.01 ** p 〈0.05 * p 〈0.1

한편, 총학생수의 계수가 모형2, 모형3, 모형4에 따라 각각 0.003, 0.005, 0.004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체수입비율에 대해서는 0.018, 0.019, 0.017로 이 역시 1%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하였으며 두 변수에 대한 계수 모두 학교특성, 교수학습특성, 지역 특성 등 통제변수를 늘려감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교 특성 중 총학생수가 많고 자체수입비율이 높을수록 국어의 보통이상 학업성취도

를 달성하는 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어와 같은 모국어, 언어능력의 경우 교육비를 투입하는 것보다 동료학습이 원활한 환경에서 노출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자체수입비율의 경우 학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대리지표로 설정한만큼 학교의 평균적인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보통 이상의 국어 능력을 가진 학생들의 비율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수·학습특성의 경우 교사 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비정규직 교사비율이 높을수록 국어 보통 이상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가 관심을 쏟아야 할 학생이 많아질 경우 충분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고 교사의 자질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경력이 짧을수록[33] 보통 이상의 성취도로 대표되는 일반적인 학업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통념을 다시 한 번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한편 지역 변인의 경우, 특별·광역시에 비해 시 및 읍지역에 속한 학교의 국어 보통이상 학생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통계에서 살펴본 것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33) 초등학교에 투입되는 비정규직 교사 중 기간제 교사는 주로 임용이 되지 않았거나 임용 후 대기발령상태인 20대 초·중반의 대학을 갓 졸업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5-10] 보통 이상의 수학 성취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B)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72.872***	57.725***	74.621***	73.478***
보편적 교육복지지출	1.339**	1.463**	1.424**	1.461***
선별적 교육복지지출	.518	.327	.282	.222
교육활동지원 지출	1.922***	2.540***	1.607***	1.437***
학교(시설)운영 지출	-2.666***	-1.289***	-2.031***	-1.885***
총학생수		.003***	.006***	.006***
자체수입 비율		.020***	.022***	.021***
교사 당 학생 수			-1.054***	-.793***
비정규직 교사비율			-.189***	-.165***
시				-1.928***
읍				-.432
면 및 특수지역				1.156
F	12.353***	16.095***	16.976***	13.759***
adjusted R^2	0.012	0.023	0.032	0.035

*** p 〈0.01 ** p 〈0.05 * p 〈0.1

수학 과목에 있어 교육복지 지출이 보통 이상 성취도를 달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5-8]에 제시되었다. 먼저 국어와 달리 수학에 있어서는 보통 수준의 성취도에 대한 보편적 교육복지지출의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이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보편적 교육복지지출을 2배로 증가시켰을 때, 보통 이상 성취도를 달성하는 학생의 비율이 약 1.46%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이 일반적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결과를 의

미한다. 앞에서 논의하였듯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에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급식·보건 관리 및 기본적 교육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선별적 교육복지사업과 구분되는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조기 선별에 따른 학생들의 무력감, 동기저하 등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수학의 경우 국어와 달리 또래집단 간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히기 어렵고, 체계적인 교수·학습활동을 통해 단계적으로 습득하는 과목의 특성을 갖는다. 특히 학습자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 등에 의한 취약집단에 속하지 않은 일반적 학생일 경우 선별적 혜택에서 제외되어 보편적 교육복지에 해당하는 교수학습과정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 교수·학습 과정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보통 이상의 수학 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에는 일반적·기본적 교육과정을 통해 전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정책투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관심변수 외의 기타 변수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교육비 지출 중 간접적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활동지원 지출이 늘어날수록 보통 이상의 수학 성취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반대로 학교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학교운영지출의 경우 지출이 늘어날수록 보통 이상의 수학 성취도 달성 비율을 높이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의 경우 회귀계수값이 항상 안정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1~모형4에 이르기까지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출과 학업성취도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먼저 간접적 교육활동지원지출에는 교무업무운영, 연구학교운영, 학습지원실운영 등이 포함되는데, 특히 수학이라는 과목 특성

에 비추어 볼 때 수학 연구학교(시범학교)에 지정되거나 학습지원실 등을 운영함으로써 기초 개념을 이해하는데 용이한 교구들을 확충하고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누락하는 학생을 방지하고 학습 흥미를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 교육활동지원 지출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반대로 학교운영지출의 경우 시설·장비를 유지하고 일반 행정을 관리, 학교시설을 확충하는 등에 투입되는 비용인데, 이것 역시 유익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결과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회귀계수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 특성 및 교수·학습 특성의 경우에는 국어와 동일하게 총학생수가 많고 자체수입비율이 높을수록, 교사 당 학생 수가 적고 비정규직 교사비율이 적을수록 보통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복지지출이 기초 미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표 5-11] 기초 미달 수준의 국어 성취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B)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1.450***	1.849***	1.512**	1.503**
보편적 교육복지지출	-.307***	-.312***	-.314***	-.333***
선별적 교육복지지출	.069	.075	.081	.082
교육활동지원 지출	.019	.005	.025	.034
학교(시설)운영 지출	.098	.061	.065	.062
총학생수		.013	.010	.003
자체수입 비율		-.001	-.001	-.001
교사 당 학생 수			.011	.017
비정규직 교사비율			.021***	.020**
시				.055
읍				-.018
면 및 특수지역				.154
F	3.010**	2.272**	2.609***	2.100**
adjusted R^2	0.002	0.002	0.003	0.003

*** p 〈0.01 ** p 〈0.05 * p 〈0.1

주로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이 밀집해있는 기초 미달 수준의 학업성취집단에 교육복지지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편적 교육복지지출이 2배(100%)로 증가할 때 기초미달 학업성취도 수준을 보이는 학생의 비율은 약0.3%p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가설 1이 지지되었다. 보통 이상의 수학 성취도를 달

성하는 학생의 비율을 높이는 효과보다는 미미하지만 국어 과목에 있어서는 기초미달 성취도를 보이는 교육취약계층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선별적 교육복지 지출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과 달리 보편적 교육복지지출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5-12] 기초 미달 수준의 수학 성취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B)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1.225	1.411	.693	.829
보편적 교육복지지출	-.117	-.124	-.124	-.119
선별적 교육복지지출	.064	.068	.075	.073
교육활동지원 지출	.005	.004	.044	.051
학교(시설)운영 지출	.005	-.013	.010	.003
총학생수		.061	.065	.062
자체수입 비율		-.001	-.001	-.001
교사 당 학생 수			.037	.026
비정규직 교사비율			.022***	.022***
시				.062
읍				-.236*
면 및 특수지역				-.152
F	0.653	0.641	1.762*	1.844**
adjusted R^2	0.000	0.002	0.003	0.003

*** p 〈0.01 ** p 〈0.05 * p 〈0.1

이에 반해, 수학의 경우 교육복지지출뿐만 아니라 기타 교육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수학 취약집단에 대해서는 가설 1과 가설 2 모두 지지되지 않았다.

오히려 주목해 볼 점은 국어와 수학 모두에서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 '비정규직 교사비율'이 높을수록 기초 미달 학생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이며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교사비율이 1%p 높아질 때 국어 기초 미달 학생은 약 0.021%p, 수학은 0.026~0.037%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다른 변수들이 고려되었다는 것은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가 같고 학교의 규모 및 사회 경제적 수준 등이 동일하며 지역 구분이 동일할 경우 다른 요인들은 기초 미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비정규직 교사비율로 대표되는 교사의 질만큼은 교육취약집단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즉 기초학력 이하의 학업성취를 보이는 취약 학생들에게는 물리적 교수·학습여건을 조성해주는 것보다 경험이 많고 안정적인 지위에 있는 정규직 교사들의 지도가 더욱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상호작용항을 고려한 모형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1) 지역에 따른 교육복지지출의 상대적 영향력 비교 (보통 이상)

앞에서의 다중회귀분석 모형에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의 경우 기준 그룹을 특별·광역시 및 시의 총 2204개 학교를 기준[34]으로 하여 읍지역, 면 및 특수지역에 속한 학교들에 대해 교육복지지출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표 5-13] 지역에 따른 교육복지지출 영향력 차이(국어 보통이상)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β		
	(상수)		88.083	4.543		19.390	.000
	1인당 보편적 교육복지 지출		.000	.718	.000	.000	1.000
	1인당 선별적 교육복지 지출		-1.059***	.462	-.092***	-2.292	.022
	1인당 교육활동 지원 지출		.911***	.343	.085***	2.657	.008
	1인당 학교(시설) 운영 지출		-.593	.378	-.056	-1.569	.117
	통제변수	총학생 수	.003***	.001	.136***	3.591	.000
		교사당 학생 수	-.375	.169	-.106	-2.219	.027
		비정규직	-.153***	.037	-.066***	-4.130	.000

34) 특별·광역시 및 시에 속한 학교들의 표본수가 가장 많으며 정책이 주로 큰 도시에서 먼저 시범운영 됨을 고려하여 특별·광역시 및 시 지역을 준거(reference)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교사비율					
		자체 수입비율	.021***	.004	.129***	5.354	.000
	읍		-10.554	6.739	-.294	-1.566	.117
	면+특수지역		-14.113***	5.188	-.582***	-2.720	.007
	보편지출×읍		-.105	1.252	-.020	-.084	.933
	보편지출× (면+특수지역)		.466	.881	.139	.529	.597
	선별지출×읍		1.823***	.716	.318**	2.548	.011
	선별지출× (면+특수지역)		2.052***	.574	.596***	3.573	.000
a. 모든 지출액의 경우 단위는 천원이며, 자연로그화한 값을 사용하였음							

*** p 〈0.01 ** p 〈0.05 * p 〈0.1

분석 결과, 지역에 따라 교육복지지출의 영향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이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특별·광역시 및 시의 경우 선별적 교육복지지출은 국어 보통이상의 학업성취도를 달성하는 학생 비율을 높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읍·면·특수지역에 속한 학교에 대하여 선별적 교육복지지출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가 각각 +1.823, +2.052로 특별·광역시의 회귀계수인 -1.059보다 반대 방향으로 더욱 크게 나타나 이 두 계수를 합한 종합적 효과는 (+)로 나타났다. 따라서 읍·면·특수지역의 경우 선별적 교육복지지출이 국어 보통이상 학업성취도를 달성하는 학생의 비율을 오히려 높인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5-13]의 결과 역시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표 5-14] 지역에 따른 교육복지지출 영향력 차이(수학 보통이상)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86.606	6.002		14.429	.000
	1인당 보편적 교육복지 지출		.506	.949	.022	.533	.594
	1인당 선별적 교육복지 지출		-1.042*	.610	-.068*	-1.707	.088
	1인당 교육활동 지원 지출		1.738***	.453	.123***	3.838	.000
	1인당 학교(시설) 운영 지출		-2.269***	.499	-.162***	-4.547	.000
	통제변수	총학생수	.005***	.001	.155***	4.103	.000
		교사당 학생수	-.748***	.223	-.160***	-3.355	.001
		비정규직 교사비율	-.179***	.049	-.058***	-3.659	.000
		자체 수입비율	.025***	.005	.115***	4.792	.000
	읍		-22.643**	8.903	-.476**	-2.543	.011
	면+특수지역		-16.927**	6.855	-.527**	-2.469	.014
	보편지출×읍		1.253	1.654	.176	.758	.449
	보편지출×(면+특수지역)		1.237	1.164	.279	1.063	.288
	선별지출×읍		2.545***	.946	.336***	2.692	.007
	선별지출×(면+특수지역)		1.781**	.759	.391**	2.347	.019
a. 모든 지출액의 경우 단위는 천원이며, 자연로그화한 값을 사용하였음							

*** p 〈0.01 ** p 〈0.05 * p 〈0.1

수학의 경우 보편적 교육복지지출과 선별적 교육복지지출이 특별·광역시 및 시 소재 학교의 학생들의 보통 이상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읍과 면 및 특수지역의 경우
선별적 교육복지지출이 기준그룹에 비하여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수학의 보통이상 학업성취도에 대해서도 가설 3이 지지되었다. 이는 국어와 동일한 결과이다. 즉 기타 교육비 지출 수준, 학교 특성, 교수·학습 특성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도 학교의 소재지에 따라 나타나는 어떠한 특성,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가정한 특성이 교육복지지출의 영향력을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도록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특별·광역시 및 시에 속한 학교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공동체인 읍, 면, 특수지역에서 선별적 교육복지지출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선별적 교육복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교육취약집단을 제대로 선별(screening)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때 작은 규모의 공동체일수록 학생들의 가정형편이나 사정을 서로 잘 알고 있을 확률이 높고 이에 따라 지역 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다면, 지원 대상을 제대로 선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느끼는 낙인감도 훨씬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취약집단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선별적 교육복지가 보통 이상의 학업성취도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종합해보면 대도시에 속한 학교의 경우 1인당 선별지출이 늘어날수록 보통 이상의 학업성취도를 성취하는 학생들을 늘리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읍·면·특수지역과 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지역에 속한 학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1인당 선별적 교육복지 지출을 늘릴수

록 보통 이상의 학업성취도를 성취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나 학교의 전반적인 학업성취도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지역에 따른 교육복지지출의 상대적 영향력 비교 (기초 미달 수준)

[표 5-15] 지역에 따른 교육복지지출 영향력 차이(국어 기초미달)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β		
	(상수)		.458	.957		.479	.632
	1인당 보편적 교육복지 지출		-.069	.151	-.019	-.455	.649
	1인당 선별적 교육복지 지출		.015	.097	.006	.152	.879
	1인당 교육활동 지원 지출		.023	.072	.011	.324	.746
	1인당 학교(시설) 운영 지출		.055	.080	.025	.690	.490
	통제변수	총학생수	.002	.000	-.009	-.223	.824
		교사 당 학생 수	.003	.036	.004	.080	.936
		비정규직 교사비율	.019**	.008	.041**	2.495	.013
		자체 수입비율	-.001	.001	-.020	-.811	.418
	읍		1.351	1.419	.182	.952	.341
	면+특수지역		1.953*	1.093	.388*	1.787	.074

	선별지출×읍	.094	.151	.079	.626	.532
	선별지출× (면+특수지역)	.090	.121	.127	.748	.454
a. 모든 지출액의 경우 단위는 천원이며, 자연로그화한 값을 사용하였음						

*** p 〈0.01 ** p 〈0.05 * p 〈0.1

특별·광역시 및 시 소재 학교의 경우 국어와 수학 모두에 있어 교육복지 지출 및 교육비가 기초미달 학업성취도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통이상과 달리 기초미달수준의 경우 면 및 특수지역에서 보편적 복지지출을 늘릴 때, 특별·광역시에 비해 유의수준 0.05에서 국어 기초미달의 학생 비중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이 지지되었다. 이는 국어의 경우 보편적 복지지출을 통해 제공되는 광범위한 교수·학습활동이 면 및 특수지역의 학교의 경우 기초 미달 학생의 비율을 줄이고 전반적으로 국어 기초 학습능력을 고루 배양하는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표 5-16] 지역에 따른 교육복지지출 영향력 차이(수학 기초미달)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73	.910		.409	.682
	1인당 보편적 교육복지 지출	-.012	.144	-.004	-.082	.935
	1인당 선별적 교육복지 지출	.044	.093	.019	.470	.638
	1인당 교육활동 지원 지출	.040	.069	.019	.580	.562

	제변수	교사 당 학생 수	.018	.034	.026	.538	.590
		비정규직 교사비율	.021***	.007	.047***	2.897	.004
		자체 수입비율	-.001*	.001	-.042*	-1.720	.086
	읍		1.233	1.350	.174	.913	.361
	면+특수지역		.280	1.040	.059	.269	.788
	보편지출×읍		-.220	.251	-.207	-.877	.381
	보편지출×(면+특수지역)		-.136	.177	-.206	-.771	.441
	선별지출×읍		-.016	.143	-.014	-.114	.909
	선별지출×(면+특수지역)		.057	.115	.084	.493	.622
a. 모든 지출액의 경우 단위는 천원이며, 자연로그화한 값을 사용하였음							

*** p 〈0.01 ** p 〈0.05 * p 〈0.1

수학의 경우에는 교육비가 기초 미달 수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 소재지에 따른 어떠한 추가적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지 않았다. 오히려 전술한바와 같이 조기에 학습 누락을 방지하고 체계적 지도가 필요한 수학 과목의 특성에 따라 비정규직 교사비율로 대표되는 교사의 자질이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교육복지에 대한 지출이 교육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만약 그렇다면 학교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는 학교의 특성이 이러한 지출과 성과간의 영향력을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제한된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35]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두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단위학교의 보편적 교육복지 지출 및 선별적 교육복지 지출이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며
둘째는 '학교가 속한 지역에 따라 보편적 복지지출과 선별적 복지지출의 영향력이 달라지는가?'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에듀데이터의 학교 단위 교육통계, 정보공시, 학교 회계 예·결산자료를 결합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연구에 필요한 변수에 결측치가 없는 3939개 국·공립 초등학교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1년의 학교 세출 금액과 2012년의 보통 및 기초미달 학생비율 사이의 인과관계를 가정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변수를 설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독립변수인 교육복지지출을 선별 및 보편으로 구분하는 것이었다. 최근 관련 연구의 경우 교육청 수준의 교육복지

35) 김지하(2014)는 "각 독립변인의 회귀계수는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자원배분의 준거자료로 활용되며, 학교교육의 의사결정론자들에게 투입요소들간의 상대적 효과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준다"고 제언한바 있다.

사업을 구분하거나(이봉주·우명숙, 2014; 한국교육개발원, 2014), 단위학교의 지출을 회계세출구조에 따라 구분(김지하, 2014)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단위학교 수준에서의 교육복지지출을 선별 및 보편으로 명확하게 나누어 정리한 선행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복지의 '대상'이 어떠한 특수한 조건에 구애되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될 경우를 '보편'으로, 복지 수혜를 위한 일정 기준이 있는 경우를 '선별'로 나눈 정의를 채택하고 구체적으로 단위학교의 세출자료에 나와있는 각 정책사업-단위사업의 수혜대상에 따라 복지사업을 구분하였다. 통제 변수의 경우 기존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학교 특성(학교 규모(총학생수), 자체수입비율) 및 교수·학습 특성(비정규직 교사비율, 교사 당 학생 수)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종속변수인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시행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국어 및 수학 과목에 대한 각 학교의 보통이상(성취도 50% 이상) 학생비율, 기초미달(성취도 20% 이하) 학생비율을 활용하였다.

먼저 학교특성, 교수·학습특성, 지역더미를 고려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교육복지지출은 국어 보통이상 학생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수학의 경우 보편적 복지지출이 보통 이상의 성취도를 높이는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미달 학생의 비율로 대표되는 교육취약대상의 경우 보편적 교육복지 지출이 증가할 때 국어 과목의 기초 미달 학생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학의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기초 미달 학생의 경우 교육비 지출의 영향에 비해 비정규직 교사비율로 나타나는 교사의 질이 더

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상호작용항을 고려한 모형의 다중회귀분석은 더욱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국어 보통 이상 학생비율의 경우 읍과 면 및 특수지역의 경우 선별적 교육복지지출이 기준그룹인 특별·광역시·시 지역에 비하여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기초미달수준의 경우 면 및 특수지역에 속한 학교의 경우에 보편적 복지지출을 늘릴 때, 특별·광역시 및 시에 속한 학교에 비해 국어 기초미달의 학생 비중을 낮추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미흡하였던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비 지출과 교육성과간의 관계를 특히 교육복지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교육 정책이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일선 학교에서의 교육성과를 평가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한정된 교육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보편적 교육복지가 확대되면 선별적 교육복지의 주 대상인 교육취약계층의 학업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보편적 교육복지 지출이 보편적 학업성취도를 달성하는 학생 비율을 높이면서도 기초 미달 학생의 비율 역시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으며, 선별적 교육복지 지출을 늘릴 경우 특별·광역시 및 시의 경우에는 보통 이상의 성취도를 달성하는 학생비율이 줄어들 수 있으나 오히려 읍·면·특수 지역의 경우에는 선별적 교육복지 지출이 늘어날 경우 그 혜택을 통해 학생들이 보통 이상의 학업성

취도를 달성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률적이지 않은 결과들은 보편적 복지지출과 선별적 복지지출 간 단순한 이분법적인 정책 루트를 놓고 프레임 경쟁을 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학교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출과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과 지속적 피드백을 통해 더 좋은 정책을 마련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교육복지지출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이다. 단위학교 수준의 예·결산 자료를 통해 각 지출을 교육복지지출(보편 및 선별)과 그 외의 지출로 나누는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다만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보편 및 선별적 복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참고하고 상위 수준의 분류를 참고하여 최대한 객관적 분류를 시도하려 노력하였으며 차후 보다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복지 지출을 세분화하여 정의하려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둘째는 적절한 통제변수를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이다. 특히 교육성과 중 학업성취도의 경우 학교 교육을 통해서 달성되는 측면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의 선천적 능력,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태, 지역 사회의 교육 인프라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통제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활용된 통제변

수 중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모형을 구성하였으나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해 모형 적합도가 낮게 나타난 부분은 결과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다. 보다 적절한 대리지표를 찾아내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지출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성과 중 국가수준학업성취도결과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인지적·정의적 측면의 발달을 모두 고려할 때 비로소 교육에 대한 투자가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측정되는 성취도는 인지적 측면 중 일부에 불과하며 인성이나 안전이 실질적으로 더욱 중요할 수 있는 초등학교 단계(남수경·김태영,2013)를 고려해본다면 정의적 측면의 교육성과를 제대로 측정해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더욱 아쉽게 느껴진다.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비가시적 교육성과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일반 논문]

Becker, B. E., & Luthar, S. S. (2002). Social-emotional factors affecting achievement outcomes among disadvantaged students: Closing the achievement gap. *Educational psychologist*, 37(4), 197-214.

Crampton, F. (1995), Is the Production function dead?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Educational Inputs on School Outcomes, *American Education Finance Association Conference*

Hanushek, E. A. (1997). Assessing the Effects of School Resource on Student Performance: An Update.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19(2), 141-164.

Leithwood, K. & Jantzi, D.(2009). Review of Empirical Evidence About School SizeEffects: A Policy Perspectiv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9(1), 464-490.

Nuttall, D. L., Goldstein, H., Prosser, R. & Rasbash, J. (1989). Differential school effective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3(7). 769-776.

Palardy, G. (2008). Differential school effects among low, middle, and high social class composition schools: a multiple group, multilevel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school effectiveness and school improvement,* 19(1), 21-49.

Ream, R. K., & Palardy, G. J. (2008). Reexamining Social Class Differences in the Availability and the Educational Utility of Parental Social Capita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5(2), 238-273.

Weiss, C. C., Carolan, B. V. & Baker-Smith, E. C.(2009). Big School,

Small School: Retesting Assumptioins about High School Size, School Engagement and Mathematics Achievement.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9, 163-176.

권혁주, 김효정, & 송재환. (2012).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46*(2), 161-184.

김민희. (2012). 교육복지재정의 방향과 과제 (p.91-124). *교육재정경제연구, 21*(1), 91-124.

김민희. (2012). 단위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과정 사례 분석. *열린교육연구, 20*(3), 169-194.

김양분. (2011). 『교육 프로그램과 학업성취: 학급 규모와 시책 사업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에 대한 토론.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57*, 53-55.

김양분, & 신혜숙. (2010).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변인의 탐색. *교육평가연구, 23*(3), 591-615.

김용남, 박동선, & 한문식. (2012). 에듀파인 학교회계제도의 성과와 과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2*(3), 179-212.

김인희. (2006). 교육복지의 개념에 관한 고찰 - 교육소외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의 이론적 기초 정립에 관하여. *교육행정학연구, 24*(3), 289-314.

김인희(2012). 교육복지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재탐색. *한국교육행정학회*. 37-58.

김인희, & 이혜진. (2015). 예비교사의 교육복지역량 함양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운영 사례 연구. *교원교육, 31*(S), 155-182.

김정덕, 김종민, 최경준, 최두열, 차윤경, & 함승환. (2014). 학교단위 교육복지 정책 성과 지수 개발 연구. *한국다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지, 2014*(S), 441-450.

김정숙, & 성열관. (2015). 한국인의 복지태도가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대한 동의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 42(1)*, 275-300

김정원. (2008). 교육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김정원. (2013).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만들어가는 교육복지. *교육비평, 31*, 37-65.
김지하. (2014). 학교회계 세입세출 구조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재정 경제연구, 23(2), 27-58.
김지하, & 우명숙. (2011). 학교재정운영 특성과 교육성과간의 관계 분석 연구. *교육재정 경제연구, 20(3)*, 249-282.
김혁연. (2014). 교육복지재정의 규모와 특성 분석. (국내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김희화. (2010). 청소년의 방과후 학교 참여와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유능감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6)*, 79-101.
남수경, & 김태영. (2013). 초등학생의 학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특성 및 교육활동 요인 분석. *교육재정 경제연구, 22*(3), 1-27.
노기호. (2012).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제로서의 교육복지. *헌법학연구, 18*(3), 83-114.
박삼철(2012). 극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대안 탐색: 호주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0(4)*, 103-122.
류방란. (2010). 교육소외 집단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 2010(1)*, 94-109.
서울특별시교육청. (2012). 2012년도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초·중학교 평가매뉴얼, 서울특별시교육청.
성열관, & 김정숙. (2015). 빈곤의 책임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윤리적 추론 방식. *교육사회학연구, 25*(2), 69-95.
송경오. (2011). 학생 개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특성 탐색. *한국교육, 38(4)*, 39-64.
신혜숙, & 김민조. (2012). 학력격차에 대한 학교수준 방과후학교 참여율의 효과 분석. *교육평가연구, 25*(3), 435-458.
신명호. (2010).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1(2), 217-245.

신중섭(2010). 무상급식의 정치철학적 함의. 철학문화연구소.
우명숙, & 김지하. (2013). 학교자원과 학교 교육성과의 관계 분석. *교육재정 경제연구, 22(1)*, 139-162.
윤홍주. (2014). 소규모학교 교육재정의 문제와 개선방안. *교육재정 경제연구, 23(1)*, 23-51.
이광현, & 권용재. (2011). 사교육비와 사교육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교육재정 경제연구, 20*(3), 99-133.
이봉주, & 우명숙. (2014). 보편적 교육복지, 제한된 교육재정.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S1), 2-41.
이중섭, & 이용교. (2009).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한국가족복지학, 26*, 159-191.
이현숙, 김성숙, 송미영, 김준엽, & 양성관. (2011). 학교 특성, 과정 변인, 학업 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평가연구, 24*(2), 317-344.
임연기. (2013). TNA를 활용한 '교육복지'에 대한 언론보도의 비교 분석. *교육학연구, 51*(2), 199-224.
임천순, 고장완, 김진영, 이광현, & 이수정. (2011). 교육재정과 학교특성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재정 경제연구, 20*(4), 171-188.
장성민, 박종철, & 서진희. (2010). 중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16(1),* 94-108.
전영한, & 금현섭. (2011). 한국 교육조직의 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학교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9(2)*, 235-266.
정근식, & 주윤정. (2013). 사회사업에서 사회복지로. *사회와 역사, 98*, 5-41.
정동욱, 김영식, & 홍지영. (2011). 서울시 초등학교 학업성취도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9*(2), 339-362.
천세영, 김혁연, & 을지새항. (2013). 교육복지 재정의 정책 논리와 규모 추정. *교육재정 경제연구, 22*(1), 51-70.
한유경. (201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효과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함승환, 김왕준, 김정덕, 양경은, & 최경준. (2014). 복지국가 유형과 교육복지의 제도적 모형. *다문화교육연구, 7*(3), 135-151.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Cohn, E., & Geske, T.G., *the economics of education (3rd ed.)*, New York : Pergamon Press, 1990, 127~131.

Coleman, J. S., Campbell, E. Q., Hobson, C. J., McPartland, J., Mood, A. M., Weinfeld, F. D., & York, R. (1966).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hington, dc, 1066-5684.

Kerlinger, F. N. (1979). *Behavioral research: A conceptual approach*: Harcourt School.

OECD(2014). *OECD 교육지표 :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14.* 서울: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곽영우, & 한국교육행정학회. (2003). *교육경제학.* 서울: 한국교육행정학회.

김민희, 최영출, 이혜정, 박수정, 이지혜, 이인회 & 이영찬. (2013). *지방, 학교가 희망이다.* 파주: 한국학술정보.

김정원. (2010). *교육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이시습.

남궁근. (2011). *조사방법론.* 서울: 법문사.

노기호. (2008). *현대 교육복지정책의 동향과 법제의 방향.* 군산: 군산대학교.

류방란. (201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종단적 효과 분석 연구(2차년도)(CR2011-0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류방란, 이광현, 김수영(2007).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균형 발전지수개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백일우. (2000). *교육경제학.* 서울: 학지사.

안병영, & 김인희. (2009). *교육복지정책론.* 서울: 다산출판사.

윤광석, 정혜경, 김양분, & 한국교육개발원. (2012).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증거기반 수립 모형.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돈희. (1999). *교육정의론.* 서울: 교육과학사.

이혜영. (2006). *교육복지에 관한 법제 연구(CR2006-19):*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 정광호. (2010).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한국교육개발원, 김양분, 임현정, 신혜숙, 강상진, 박현정, 조순옥. (2009). *주요교육 정책 성과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엄문영, 이선호, 김혜자, 김민희, 오범호, & 윤홍주. (2014). *교육복지투자 실태 및 효율화 방안 연구(RR2014-3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허병기. (1998). *교육의 가치와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Welfare Expenditure and Educational Performance

– Focusing on Students' Achievement in National-Public Elementary Schools

Shin, Ka Young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Policy
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al welfare service is in a growing trend, as educational welfare has been the center of attention in South Korean politics for the past few years. The expansion of universal welfare service – under two major projects called 'Free school lunch plan (moosang-gupsik)' and 'noori-gwajung' – raises concerns on the possibility of reduction in the aid for disadvantaged students, and weakening the soundness of education finance. Therefore, the major issue of the education welfare policy is on how to secure the budget for educational welfare project and improve the efficiency on allocation of education resour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expenditure on educational welfare has influence on students' achievement by verifying

the correlation between educational welfare expenditure on school level and the results from national test for students' achievement.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Does universal and selective educational welfare expenditure has impact on students' achievement? And if so, does the correlation between educational welfare expenditure and students' achievement vary by region type?

Using data provided by 'Edudata'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on educational statistics, school information, and budget and accounts on school leve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educational expenditure and students' achievement has been processed on 3939 individual public elementary schools. The result of this study may provides a guidance on what type of educational welfare service to implement to design a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policy under such budget constraints.

.....

keywords : educational welfare, universal welfare expenditure, selective welfare expenditure, students' achievement

Student Number : 2013-23645